

18대 총선을 위한 설교 자료집

# 정치적 제자도와 기독교인의 선택



Christianity & Politics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 편저



(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 C.O.N.T.E.N.T.S

---

차례		2
서문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치		3
<b>1부. 18대 총선과 한국 교회</b>		
정치적 제자도와 기독교정치인의 사명	민중기	7
기독교와 정치를 생각해 보자	김선욱	18
유권자의 제자도	정지웅	22
<b>2부. 정치적 제자도를 위한 설교문</b>		
어떤 일꾼들을 선출할 것인가?	이동원	36
새 시대의 지도자 칼럼	민중기	39
이제는 큰 근심을 할 때입니다!	임성빈	43
사도 바울이 감당한 십자가의 제자도	노영상	47
섬기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김회권	51
느헤미야 같은 위정자를 택하라!	신원하	58
주님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유경동	6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66

## ■ 서문

#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정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이중적으로 정치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교회 안과 밖의 생활 모두가 이미 정치 매트릭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이미 정치가 있고, 또 교회가 이미 정치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은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비기독교적 영향권 아래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함께 살아가려는 인간의 가장 단순한 삶의 방식에 기초를 둔, 인간으로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크리스천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크리스천은 정치에 대해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관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로서의 크리스천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정치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성을 딴 곳에 두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하여 공존과 살림을 위한 정치행위를 해야 합니다. 관객으로서의 크리스천은 열심히 관전평을 내보내야 합니다. 마치 무대의 배우처럼 정치는 관객의 반응을 보며 연기하듯 정치를 합니다. 관객의 평은 그들의 연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며, 심지어 그들의 연기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평가는 바람직한 정치 수행에 필수조건이고, 민주시민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기독교적’인지 크리스천은 끝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는 끝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8대 총선을 위한 설교 자료집 - 정치적 제자도와 기독교인의 선택’은 그런 고민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제자도의 개념을 정치 영역에도 적용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정치인과 유권자의 모습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교 자료집이 ‘기독교적’인 정치를 고민하는 크리스천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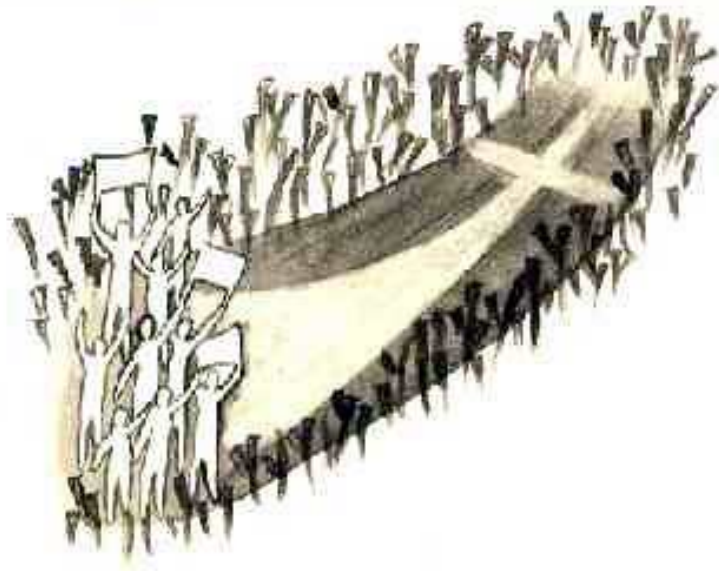
김 선 욱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장  
송실대 철학과 교수



# 1부

## 18대 총선과 한국 교회





# 정치적 제자도와 기독교정치인의 사명

## 민 종 기

(LA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풀러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I. 작업이나 실천이나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어떤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어떤 사람은 일의 의미를 찾는다. 의미가 없는 인생은 단조롭고 권태로우며, 종종 오락과 공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일상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이나 아니냐에 따라 두 종류의 일로 나누인다. 하나는 “작업”(doing)이요 다른 하나는 “실천”(praxis)이다.<sup>1)</sup> 작업하는 자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일에 사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의 목표와 의미는 필수적인 것이다.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시간의 점유(occupation)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실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일정한 목적과 뜻을 이루려는 것이고, 공헌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실천으로 만드는 것은 사명이다. 사명은 역사의 중요한 계기나 위기가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역사의식과 사명감이다. 또한 신자에게 있어서도 신의 소명(召命, calling)과 같은 특별한 선택이 그 사람의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sup>2)</sup>에게 있어서 신의 사명은 공적 사역의 중대한 원천이었으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에 따른 기름 부으심은 그 사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비록 현대사회가 신비적인 소명을 주시는 신의 현현(theophany)이 희소하다 할지라도,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에게 있어 사명감과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는 격문과 표어, 선전문구와 비전제시의 형태로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나타난다.

더욱이 기독교정치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그 정치적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학적인 배경

- 1) 헬라이어 단어에는 “일하다,” “제작하다”라는 말로서 “포이에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같은 의미로서 실천한다고 종종 해석되는 “프락시스”라는 말이 있다. 이 중에서 후자는 작업의 의미를 알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막스 웨버는 세 종류의 지도자를 나누며, 카리스마적 지도력, 전통적 지도력, 그리고 합법적 지도력으로 설명하였다. 고대의 경우, 천부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었으며, 혈통과 관습에 따른 왕이나 귀족과 같은 전통적 지도자, 그리고 근대사회에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합리적 지도자를 든다.

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정치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제자 됨은 신자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또한 현대적이기도 한 화두이다. 정치적 제자도의 신학적 가능성과 함께 그러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차별성을 논의하려는 것이 이 소논문의 목표이다.

## II. 교회내적 제자도와 교회외적 제자도.

현대 정치인에게도 제자도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가장 커다란 중대명령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하나는 창세기 1장 26-28절에 이르는 문화명령이고,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이르는 복음명령이다. 이러한 문화명령이 정치와 아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은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통하여 문화를 창조하는 명령으로 이해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복”을 받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다. 여기서의 “문화”가 반드시 물질문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자연에 노동을 가함으로 생기는 문명이라고 간주되는 “인간-자연 사이의 문화”(human-to-nature culture)가 있는가 하면, “인간 사이의 문화”(human-to-human culture)가 있다.<sup>3)</sup> 전자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차원에서의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은 정치문화를 창조하라는 명령을 받은 인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넓은 의미의 문화의 하위개념인 정치문화를 계발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명령이 정치적 제자도(political discipleship)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문화명령은 인류 전체를 향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소명이다. 여기서 특수한 정치영역의 제자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자도(discipleship)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신 복음명령, 혹은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명령이 보편적인 차원의 명령이라면 복음명령은 그리스도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한 명령이다. 부활 이후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마 28:18). 이러한 차원에서 제자도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도의 요청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제자도에 대한 요청을 받는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체험한 자로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그의 명대로 순종하여 행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하여 은사에 따라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소명이자, 포괄적인 행동의 요청이다. 이를 우리는 편의상 제 1차적 제자도 혹은 “교회내적 제자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자도의 양식을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나 교회 밖

3) 문화의 구분은 종종 물질문화, 정신문화로 대별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물질문화나 정신문화는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사실상 제자훈련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지역교회에 있어서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바른 지적이다. 제자도는 총체적이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제자훈련의 내용은 교회내적 제자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4)</sup>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교회의 사역에서 봉사하도록 인도된다. 제자훈련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 요청이라는 사실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삶의 전 영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제자훈련의 개념과 실천은 용이하지도 아니하다.

**제자도 = 제 1차적 제자도 + 제 2차적 제자도**

**소명론 = 교회내적 소명론 + 교회외적 소명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활동은 교회 내의 활동에만 국한 되어서는 아니된다함은 옳은 지적이다. 성경의 적용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sup>5)</sup> 제자도의 실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인 환경인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속의 영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회내적 제자도”는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갱신 및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교회내적 제자도에 머물러서는 이 세상에서의 직업을 통한 실천적 소명을 완수하기는 어렵다. 제 2차적인 제자도는 이러한 견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직업적 헌신을 통한 모든 성도의 제자도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외적 제자도, 제 2차적 제자도에 관한 한 이는 사실상 목회자가 모두 가르치거나 직접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인의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전자에 관한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의 책임이 크지만, 후자에 관한 한 목회자는 이제 2차적 제자도의 발현을 위하여 간접적인 도우미로 각각의 사역을 발전시키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오히려 제 2차적 제자도는 평신도의 복음적 실천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나가는 과정”(마 28:20)에서 세속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직업적 노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행위는 복음전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교회의 영역(A)**

**사회의 영역들(B)**

**평신도의 유형**

**A형**

**AB형**

**B형**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신교회의 성장이 멈춘 이유의 하나는 어떻게 사느냐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제 2차적인 제자도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삶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신앙세계와 그 가르침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변화된 삶의 임재”(presence)와 “말을 통한 설득”(persuasion)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신자의 말은 땅에

4) 제자훈련을 지역교회에서 실시할 때,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이 단지 지성적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하게 된다. 삶의 전반에 관한 폭넓은 관점의 발견과 삶의 변화, 나아가서 각각의 생활영역에서의 영적 개혁과 윤리적 변혁을 의도한다. 그러나 기존의 교제나 훈련의 내용은 다분히 그리스도인의 “교회 외적 소명,” 직업적 영역에서의 헌신은 빈약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면에서 보완된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5)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사역훈련교재 3권 “귀납적 성경공부:적용” 부분을 참고하라.

떨어지게 된다. 특히 교회와 사회의 영역 속에서 균형 잡힌 실천을 통한 삶을 사는 평신도가 필요하다.

### III. 일반은총과 정치적 제자도.

정치적 제자도가 발생하는 영역은 제 2차적 제자도와 교회외적 소명론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평신도의 활동영역이며, 목회자들이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사역의 조력자로서 입장을 전환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관한 한,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일반은총”이란 이론의 틀 속에서 오랜 동안 그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sup>6)</sup>

#### 1. 일반은총론

일반은총이란 구원이라는 특별은총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반은총이란 타락한 인류의 문화가 소실되거나 즉각적인 역사의 붕괴를 막기 위한 죄의 영향력에 대한 하나님의 억제이자 베푸시는 자비의 지속적 연장이다. 교회가 구속(救贖)받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일반은총의 영역은 구원받은 영역은 아니다. 아직도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며, 세속적인 정보와 실리적인 이익을 위한 각축을 통하여 작동하는 영역이다. 이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진 창조의 광대한 영역만큼이나 넓고 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총의 영역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비는 타락한 문명이라도 단절되지 않도록 중국, 몽고 등의 동양문화권 속에, 그리고 현재의 이슬람 문화권 속에도 우수한 문명과 광대한 지식의 보고를 유지시키셨다.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하심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인류를 교정하고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지속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셨으며, 가인의 후손들에게 물질문명을 개발하는 복을 허락하셨다(창 4:15-24). 농경의 방식, 이성의 계발과 학문과 철학의 발전, 언어와 관습의 발전과 양심과 도덕성의 계발은 모두 일반은총의 요소들이다.<sup>7)</sup>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은총은 현저하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관원들을 통하여 정의

6) 이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연구를 위하여는 다음의 서적을 참고하라. James Daane, A Theology of Grace: An Inquiry Into and Evaluation of Dr. C. Van Til's Doctrine of Common Grace(Grand Rapids: Eerdmans, 1954), Abraham Kuyper,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 James Bratt (Grand Rapids: Eerdmans, 1998), William Masselink, General Revelation and Common Grace: A Defense of the Historic Reformed Faith over against the Theology and Philosophy of the So-called "Reconstructionist" Movement (Grand Rapids: Eerdmans, 1953), Richard Mouw, T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Grand Rapids: Eerdmans, 2001),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Nutl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47), -----, Common Grace and the Gospel(Nutl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4).

7) 일반은총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곡식을 부수지 아니하는가... 그의 모락은 기뻐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사 28:28),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 주심이라(마 5:45),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롬 2:4),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심(행 14:17), 모든 선한 선물과 은사가 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옴(약 1:17).

세우시고(롬 13:1-7), 법질서를 세우고 군인과 경찰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수많은 제도를 통하여 인간을 유익을 위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일반은총의 기관으로 국가의 권위는 섬김을 위하여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가진 “다스리는 권세”는 사회적인 힘으로서 은총을 매개하는 권위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사회 질서를 위해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권위는 일종의 직임으로서 사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규범을 실현하고 은총을 전달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롬 13:1)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활을 유지하도록 규범을 설정해 놓으신 분이심을 뜻한다. 더구나 권위는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지를 가져다주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의 영역에 파송된 제자는 정치영역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정치영역의 제자들은 직임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시민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직무인,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관리의 직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정치는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 즉 “공적 책임의 신학”(theology of public responsibility), 혹은 “신자가 인류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신학”(theology of Christian's shared humanity)을 가져야 한다.<sup>8)</sup>

## 2. 정치적 제자도의 가능성.

제 2차적 제자도 중에서 특히 정치와 관련된 정치적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의 성역을 떠나서 삶의 모든 영역과 함께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펼쳐져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일반은총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당위성을 그의 기념비적인 “영역주권론”(theory of sphere sovereignty)을 통하여 펼쳤다. 일반은총의 다양한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한 것이다.<sup>9)</sup> 더구나 많은 복음주의적 신학자들도 정치적 제자도의 가능성을 다음의 논거에 의하여 주장한다.

정치적 제자도의 가능성은 첫째, 신자의 실천적 영역을 영혼구원에 한정시키는 극단적 전통을 탈피하여 그 범위를 사회의 제반 영역으로 확대시킴으로 가능해 졌는데, 이는 구속의 중요성과 함께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반은총과 영역주권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풀러신학교 총장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w) 교수는 성경의 드라마를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축으로 설명해 간다.<sup>10)</sup> 이 중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요소라면 인간 구원의 문제도 성경드라마의 총체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때의 인간의 구원은 단지 타락한 인간의 영혼 문제뿐 아니라 전인(全人, whole ma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sup>11)</sup> 더구나 인간의 타락이 영혼에서 시작되어 그 영향이 우리의 언어, 기술, 및 정치제도 및 모든 문화에 까지 미치고 있다면, 기독교적 실천의 영역은 인간의 영혼구원과 아울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즉 창조의 지탱, 보존, 발전과 관련된 일반은총(common grace)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고 그의 통치

8) Abraham Kuyper,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James Bratt 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165-167.

9)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은 그의 주저 중의 하나이나 아직 영역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일반은총론에 관한 영역된 논문이 다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Abraham Kuyper,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James Bratt 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165-201.

10)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개혁주의 세계관은 다음을 참조하라. Richard Mouw, Politics and Biblical Drama (Grand Rapids : Baker Book Nouse, 1976).

11) Richard Mouw, Political Evangelism, 이정석 역, [정치전도](서울: 나비출판사, 1988), 15.

를 수납함으로 죄로 인한 타락의 영향을 극복하는 작업도 포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는 “인간”과 그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기독교적 실천의 전망아래 두려하는 총체적 제자도의 요청이며 정치적 제자도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

둘째, 정치적 제자도의 가능성은 이원론의 극복에 의해 발견되는데, 이는 존 칼빈의 하나님 주권사상 및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사상에서 발견된다. 칼빈에 있어서 이원론적인 긴장은 신주권적 일원론에 의해 대치된다. 칼빈에 의하면 선택은 섭리(providence)를 배제하지 않으며 시민공동체와 기독교공동체, 세속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율법과 복음,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카이퍼에 있어서도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피할 수 없다. 고유한 성질과 법칙을 가진 각기 다른 영역은 평등한 상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역의 핵심은 역사의 중심무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따라서 카이퍼는 종교를 단지 삶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영역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하며 종교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카이퍼는 성속의 이분법을 배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범위를 창조의 광활한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카이퍼가 프린스턴 대학의 스톤강좌(Stone Lecture)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대신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주창하며 종교, 정치, 과학, 예술 및 미래가 그리스도인의 사유와 사역의 대상임을 상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12)</sup> 이들에 의해서 정치적 제자도의 가능성은 비로소 개혁주의 신앙의 실천적 명제가 된다.

셋째, 정치적 제자도의 가능성은 인죄론과 구원론을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사회, 정치 및 경제의 제 영역에 확대 해석함으로 획득되었는데 이는 현대 개혁주의 사상과 유리된 것이 아니다. 리차드 마우는 죄의 타락한 세력이 일대일의 개인적 관계에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의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생활을 지배하는 조직과 절차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말한다.<sup>13)</sup> 실상 이러한 구조적, 집단적 타락 현상은 인간관계가 응고된 실체인 제도와 구조 속에 그 죄악의 힘을 영속화 하려고 한다.

칼빈주의 전통에 선 프랑스 현대 철학자 폴 리코어(Paul Ricoeur)도 집단적 죄(collective sin)가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및 가치의 영역에서 발견되며, 개신교 문예부흥이 죄의 집단 현상을 망각하는 개인주의에 빠졌을 때 오히려 마르크스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자행된 소외 현상을 정확히 지적하며 기독교를 정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14)</sup> 죄악의 집단현상이 편만한 세속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개인경건과 영혼구원에 한정시키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진다. 제도는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단지 회심의 차원에 머무는 한 소외를 산출하는 제도는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다.<sup>15)</sup> 오히려 참된 회심은 반드시 개인적 회심과 아울러 제도의 개혁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자는 정치를 오염시킨 죄악으로 인한 “권위와 자유의 오랜 싸움”에서 “자유에 대한 선천적인 갈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함으로<sup>16)</sup> 정치적 제자도의 선조(先祖)가 되었다.

12)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 Eerdmans, 1931), 11-12.

13) Mouw, Political Evangelism, 이정석 역, [정치전도], 44.

14) Paul Ricoeur, History and Truth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1965), 115-6.

15)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49-51.

16)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80.

## IV. 국가의지와 정치적 제사도.

정치의 영역에 거대한 갈등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정치에 강제와 합리성의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한다는 사실보다, 그것들이 정치인의 악한 의도에 의하여 이용되는 때문이다. 제도의 성장은 권력의 증대인 동시에 정치적 조작을 향한 위협의 증대이기도 하다. 합리성의 제고에 따른 발전적 현상이 동시에 정치적 악의 기회 증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의 독재는 헌법을 폐지하지 않으며, 그것을 전체를 위한 알리바이로 삼는다. 중앙행정과 여론 취합의 기술은 압제를 조직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독재의 합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합리성과 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존재이다.<sup>17)</sup>

### 1. 국가의지.

국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신약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준 국가에 대한 두 가지 기록, 완벽하게 다른 두 가지 기록인, 로마서 13장과 계시록 13장을 참고하여야 한다.<sup>18)</sup> 전자는 사도 바울의 것으로 국가를 정당화시키는 통찰을 제시하며, 후자는 사도 요한의 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제공하고 있다. 바울의 국가는 관원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요한의 국가는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성경의 본문은 결국 국가의 두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9)</sup> 국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을 행하는 봉사를 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그 자체가 사탄의 출현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이 국가의 역설적 두 기능은 국가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맥락에서 관찰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탄적인 비인간화의 맥락에서 비판하도록 만든다.

국가기능의 선과 악은 국가의 기원이나 국가의 본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죄로 인하여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나, 강제력이 국가의 기초를 놓는 본질이라는 사실은 국가를 정죄할 수 있는 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 국가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정치의 영역은 인간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산물이다.

국가의 합리성이나 강제력과 같은 이중적 본질이 국가의 각기 다른 윤리적 기능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윤리적 기능을 결정하는 실체일까? 국가의 역설적인 기능은 국가가 의지라는 사실에 있다. 도예베르트스는 국가가 의지라고 말하면서, 누가 국가의지의 디자이너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에게, 국가의지는 한 공동체나 사회의 집단적 총체의 의지이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공동체는 변하지 않는 구조적 틀 속에서 조직화된 공동체적 의지와 함께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지”란 허구적인 법적 추상이 결코 아니며, 그것은 공동체적 총체의 조직화된 실제적 의지이다. 국가의지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법적인 관계에 의하여 명실상부한 자격을 구비하게 되며, 역사적인 영토 안에서 군사력을 장악함으로써 기초가 놓아진다. 그러나 국가의지는 의지적 방향의 조직화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체험의 모든 양상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로써 사회 전체의 조직화된 행동이 구현된다.<sup>20)</sup>

17) Ricoeur, *Political and Social Essays*, 207-208.

18) Cullmann,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 86-87.

19) Ricoeur, *Political and Social Essays*, 201-202.

20) Dooyeweerd, *New Critique*, vol. III, 436.

폴 리피르 역시 “국가가 의지라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즉, 국가는 역사를 통하여 결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바로 이 결정을 통하여 시민의 운명을 바꿔왔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가의 개념 속에서 국가 자신에 의하여 구성되고 인도되는 “결정이라는 관념”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는 합리적인 조직이며, 정치는 미래의 가능한 상황과 가능한 계획을 분석하여 마련한 결정을 포함한다.<sup>21)</sup>

우리가 국가의지를 논할 때, 우리는 국가가 어떤 독특한 계획을 결정하는 윤리적 주체일 뿐 아니라, 그 계획 속에 어떤 동기를 주입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국가의 윤리적 책임은 바로 자신의 동기를 주입시키거나 고취시키는 순간에 발생된다. 국가의지는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전제자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경우, 국가의지는 모든 공동체의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그것이 된다. 그러나 현대 민주적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은 사회의 여론에 의하여 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발전된 현대국가에서조차 국가의지는 한 집단이나 여러 집단들 혹은 사회 속의 편견에 사로잡힌 상식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다. 집단적 편견이란 그 집단의 지속적인 안녕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한 집단의 정책 결정에 의하여 생긴다. 한 집단의 정책결정은 그 독특한 집단 안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왜곡된다. 우세한 집단의 이익이 도전을 받을 때, 집단적 편견은 그 우세한 집단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눈멀게 만들면서, 더욱 정의로운 사회의 재편성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고려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sup>22)</sup>

## 2. 정치적 제자도의 구현을 위한 지침.

정치영역에 과송된 기독교정치인의 경우, 그는 자신의 확립된 제자도를 통하여 섬김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치기구가 정의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우세한 계급의 이념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국가의지가 국가 이익의 전체적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집단 이기주의는 종종 공중정의를 왜곡하여, 국가의지로 하여금 계급적 이익의 합리화수단이 되도록 하는 예가 자주 등장한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의하여 제기되는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적 편견의 현저한 사례이며, 그것은 미국의 경우 흑인신학과 여성신학에 의하여 비판을 받았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지역주의와 같은 집단적 편견은 종종 “상식”이라는 “일반적 편견”에 의하여 합리화될 수 있다. 상식은 더욱 깊은 성찰에 기반을 둔 통찰을 이상적이라고 여기면서 상식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왜곡이 이미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세계를 점거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의 세계나 국가는 전통적인 지혜, 혹은 세상에 대한 상식적 접근방법을 자신의 공통분모로 가진다. 그러므로 상식의 한계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 진보를 향한 개혁의 가능성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일반적 편견은 이미 집단적 편견에 의해서 생긴 왜곡된 국가의지를 정당화한다.

공중정의를 시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제자도는 현재의 상식과 시대정신을 따르기 보다는 모든 세계 속에 구현되어야 할 정의를 위하여 투신한다. 첫째로 인간의 회복을 위한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정치인의 임무는 “공중정의를 시행되는 것”에 있다. 공중정의를 실현

21) Ricoeur, *History and Truth*, 254-255.

22) O'Keefe, *What are they saying about social sin*, 78-79.

은 국가를 국가 되도록 인도하는 기능일 뿐 아니라 국가의 피할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 정의를 시행하는 자의 의무는 그릇 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사실상 관원의 폭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1-7에서 국가의 기능을 요약한 것에 따를 때, 심판의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폭력”이다. 바울이 선을 위하여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지 위에 세워진 폭력인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권세는 그러므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부터 국가의 질서와 평안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sup>23)</sup>

분배정의의 구현. 정의의 수행은 국가에서 악을 징벌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정의는 한 체제 속에서 응보정의(retributive justice) 뿐 아니라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포함할 때,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응보정의란 사람의 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형법적 정의이다. 분배정의는 사회의 이익의 배분을 위한 공평한 기준을 논한다. 성경이 정의라는 관념을 분배적 기능에까지 확장시킬 때, 정의라는 관념은 사랑의 개념과 연장선상에 있게 된다. 실제로 기독교정치인의 정의시행은 국가를 기독교의 사랑의 명령에서 분리시키지 않아야 한다. 악의 징벌에 관심을 쏟는 정치인은 또한 가난한 사람과 핍절한 사람을 위한 봉사를 감독하여야 한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에게 현존하는 당시 권세를 향하여 반역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의의 시행이 십자가의 사랑과 조화되며, 질서의 평화로움이 복음전파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리피르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교육의 가능성, 즉 정의와 사랑, 무저항과 형벌, 상호이해와 권세에 요구되는 복종, 그리고 자애와 두려움의 교육학이 수렴되는 것”을 목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국민복지의 달성. 구교의 철학자 자끄 마리탱(Jacques Maritain)이 사용한 국가의 종합적 기능이라는 관념은 기독교정치인이 복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리탱의 국가의 기능은 니콜라스 윌터스토르프에 의하면 “법, 정의, 그리고 복지의 관점에서 본 국가기능론”이다.<sup>25)</sup> 윌터스토르프의 관찰에 의할 때, 마리탱의 국가는 세 가지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된다. 첫째로 국가의 적절한 기능은 “정의와 선한 질서에 기반을 둔 법체계에 의하여 개인이나 사회와 같은 정체의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의 적절한 기능은 정체를 구성하는 시민과 사회 속에서 “사회정의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의 적절한 기능은 “경제적 복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다.<sup>26)</sup> 여기서 마리탱의 국가는 단지 법과 정의를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복지와 공공질서를 장려하며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에 관련된 정체이다.<sup>27)</sup> 그는 국가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 한편으로는 “사회정의를 펼치는 것”에 이어서 세계경제의 관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현대의 정치적 제자도가 경제를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다원적 영역의 유지. 정치적 제자도를 가진 기독교정치인은 사회적 다원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사회는 장기간의 역사 가운데서 다양한 영역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국가권위는 존재의 논리가 다른 다양한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구조적 담장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는 국가 권위의 한계라는 차원에서 “영역주권”이라는 용어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이 용어

23) Ricoeur, *History and Truth*, 236-237.

24) Ibid., 237-238.

25) Wolterstorff, "Contemporary Christian Views of the State," 130-131.

26) Ibid., 131-132.

27) Ibid., 12.

는 1880년 아브라함 카이퍼가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창설하며 사용되었던 말이다. 그는 국가, 교회, 학교, 가정과 같은 사회적 영역을 구분하면서 이 각 영역은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국가뿐 아니라 교회, 가족, 학교, 상업, 과학, 예술과 기타 영역이 자신의 영역 속에서는 주권을 가진다. 각 영역의 권위의 근원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sup>28)</sup> 카이퍼는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 그들의 권리, 양심과 믿음을 통제할 무한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월처의 “정의의 다원적 영역”이라는 개념도 역시 현대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고유한 영역이 존재함과 그 영역이 인정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다원주의를 위한 논거를 제공한다.

## V. 기로에 선 정치적 제자도

많은 경우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권력의 악 때문에, 학자들은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저명한 프랑스 기독교 학자인 자끄 엘뤼(Jacques Ellul)은 성경이 정치권력을 “거부하고, 힐난하며, 유죄판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이 복음서과 계시록에서 보여주듯이 권력에 대한 더 큰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엘뤼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이 무가치하고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고 말한다. 엘뤼는 요한 또한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하여 말한다고 주장한다. 계시록에서의 정치권력이란 사악한 짐승의 형태를 취한다. 더 나아가서, 정치권력은 칼을 가지고 붉은 말을 탄 자로서 단지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을 집행하고, 인간 사멸을 가져오는 기능을 행하는 자로서 묘사되어진다. 그리고 바벨론의 최후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돈의 힘과 도시의 구조로서 피조물에 대한 우상숭배가 관영한 문명임을 묘사할 뿐이라고 한다.<sup>29)</sup>

엘뤼의 견해는 정치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은 정치권력에 대해 보다 더 균형 잡힌 전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한편으로 권력의 악을 비판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정치권력의 신적 기원과 긍정적 역할을 방어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도예벨트(Dooyeweerd)의 경우, 모든 권력은 창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권력은 문화적인 발달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이고, 오직 죄에 의하여 악마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다. 도예벨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권력을 소환하여 자신을 위하여 봉사하시도록 하는데, 특히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주장 속에서 가시화 된다.<sup>30)</sup> 밥 하우스즈바르트(Bob Goudzwaard) 또한 동일한 개혁신학의 흐름 안에서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정부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경향을 옹호하거나 환영했다면 그들은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sup>31)</sup>

스티븐 모트(Stephen Mott)는 권력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하며, “심지어 죄가 권력에

28) Kalsbeek,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92.

29) Jacques Ellul, *Jesus and Marx: From Gospel to Ideology*, trans. Joyce Main Hanks (Grand Rapids: Eerdmans, 1988), 163-170.

30) Dooyeweerd, *Roots of Western Culture*, 66-7.

31) Bob Goudzwaard, *A Christian Political Option*, Herman Praamsma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2). 36.



대한 갈망 속에서 그 스스로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할지라도, 권력은 죄 그 자체와 같을 수 없음을 힘 있게 주장한다.<sup>32)</sup> 죄와 권력을 동일시하는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권력이 종종 선으로써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적 존재의 표현이며, 또한 우리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시편 62:11)는 성경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모트가 말하는 권력의 3가지 형태--방어적인 권력, 착취하는 권력, 중재하는 권력--는 정치권력이 필연적인 혹은 범주적인 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모트에 있어서, 단지 착취하는 권력만이 악이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한 필수적 장벽인 “방어적 권력” 또는 “존재를 위한 권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는 “방어적인 권력”과 “중재하는 권력”이 선함을 묘사한다.<sup>33)</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제자도는 제한 없이 이상화되거나 명백히 거부되어서도 아니 된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정치적 제자도는 국가를 구원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리처드 마우가 주장하듯이 기독교 공동체의 외적 사명을 “선포”, “섬김”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서의 “제자화”로 요약할 때, 정치적 제자도란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조건들은 그리스도의 세 직분 곧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sup>34)</sup> 있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제자도를 폐기시키지 못한다. 더욱이 국회에 진출한 정치가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이라면 정치적 제자도는 그 성취의 초보적 단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요청되어지는 정치적 변혁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32) 스티븐 마트는 또한 권력의 긍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로 권력은 사물의 창조되어진 상태를 합법적으로 방어하며, 둘째로 반역적인 자유를 제한하며 인간의 상호관계와 공동체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셋째로 연약한 자에게 권력을 분산시키므로 그들이 권력을 매개로 상호작용을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Mott, *Political Thought*, 33.

33) Mott, *Political Thought*, 15-24.

34)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67.

## 기독교와 정치를 생각해 보자

김 선 욱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장, 숭실대 철학과 교수)

### “정치를 하시려거든 나와 이혼하고 하시오”

지금은 은퇴하신, 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한 목사님이 4·19 직후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부인과 이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당시 부인은 “정치를 하시려거든 나와 이혼을 하고 하시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였고, 망해가던 학교를 선교사와 함께 인수하여 행정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등 주목받는 사회적 활동을 했던 터라, 민주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던 때에 정치 일선으로 투신하라는 주변의 권유에 그 목사님은 깊이 고민했을 터였다. 은퇴식 후 그는 일생 중 중요한 몇 순간을 기억하면서, 국회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을 당시 부인을 통해 들었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간증하였다. 해방 이후의 한국정치사를 되짚어 보면 위의 일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치와의 거리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도 있다.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판에 크리스천이 들어가면 십중팔구 ‘더러운’ 정치인들과 동화되어 함께 더러워지거나, 또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 외톨이가 되어 모함 받고 배신당해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기독교의 정치 거리두기 역사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가 기독교의 본질처럼 인식된 것은 서구 기독교의 전통에서 정치와 기독교가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원형이 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보면 지상의 도성은 천상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며, 지상의 정치에 관심을 쏟기보다 교회 공동체와 신자간의 사랑의 교제에 관심을 쏟아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었다.

이런 이분법적 인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원조인 플라톤에 힘입은 바가 크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결국 모함을 받아 독배를 받아 죽었다. 그의 죽음을 목격한 플라톤은 세속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현실을 초월한 세계가 존재하며, 현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이원론은 플라톤이 받은 충격의 반향이었다. 이 이분법은 정치적 격동기에 살았던 교부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그대로 유효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 즉 유럽에 기독교적 세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세속적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을 정치와 무관하게 설정하더라도 문제는 없었다. 정치는 교회가 설정한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속 국가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충돌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근대로 오면서 환경이 달라진다. 계몽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적 세계는 탈신화화 되었고 사회가 합리화 되면서 기독교와 정치의 갈등은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는 또 다르다. 미국은 독립 이후 국교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토마스 제퍼슨의 수정헌법 제1조에 표명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는 무관하다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특정 종교 혹은 종파를 국가 종교로 삼음으로써 다른 종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주거나, 정치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건국의 과정에 기여한 청교도의 정신적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 정치의 근본에는 기독교 개신교적 가치관이 일종의 정치적 체크 밸브의 역할을 하였다.

##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정치

한국 크리스천이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나 근대 유럽, 혹은 미국의 배경에서 이해된 관계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한국은 고려할 요소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기독교 외 타종교들도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고 있다. 한국은 전통 종교인 유교, 불교, 무속신앙과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은 정치에 대해 논할 때 교회 밖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이루어져왔기에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이해도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이 글의 초두에 썼던 목사님의 예가 발생한 시기와 오늘의 정치 상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시민들의 정치의식도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치의식이 올바른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제정치의 중심에 문제 지역으로 서 있다. 남북분단, 북핵, 경제적 도약으로 인한 국제적 지위 향상과 그에 따른 국제적 역할의 요구 등은 우리들의 소박한 태도조차 적극적인 정치적 의미로 만든다. 이러한 복합적 구도가 한국의 정치 영역에 형성되어 있기에 한국 크리스천의 정치에 대한 관계 설정은 서구에서 형성된 신학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크리스천 스스로가 고민하여 설정할 문제이다.

## 정치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조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이중적으로 정치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기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개인의 구원에만 몰두했던 신앙태도나, 1980년

국보위 시절 전두환 국보위원장이 주관한 기도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축복 기도한 것,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관심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 또는 순수한 신앙과 박애정신에 바탕을 둔 순수봉사 선교활동조차도 국내,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신앙인의 교회 안과 밖의 생활 모두가 이미 정치 매트릭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 속에 이미 정치가 있고, 또 교회가 이미 정치 안에 있다.

정치는 권력 장악의 문제가 아니며,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도 아니다. 정치의 악은 정치를 오직 권력의 문제로만 이해할 때 발생한다. 기독교인이 국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여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기독교 정치의 이상이 될 수 없다.

정치는 소통과 공존의 문제이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며 그들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존을 추구하는 예술이 정치이다. 이것이 오늘의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이념인 것이다. 근본주의적 종교의 정치관이 종종 전쟁으로 이어지고 잔혹한 테러와 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독선에 기초한 종교적 태도가 권력 정치적 개념을 갖고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대화와 소통은 없고 오직 승리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느냐, 패배하여 죽음으로 최후를 고하느냐의 선택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정치가 아니다.

##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천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은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비기독교적 영향권 아래로 옮겨놓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정치를 전도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개종을 목표로 해서 안 된다. 이는 가장 비정치적 행위가 된다.

크리스천은 정치에 대해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관객이 될 수도 있다. 행위자로서의 크리스천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정치에 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치성을 딴 곳에 두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하여 공존과 살생을 위한 정치행위를 해야 한다. 관객으로서의 크리스천은 열심히 관전평을 내보내야 한다. 마치 무대의 배우처럼 정치가는 관객의 반응을 보며 연기하듯 정치를 한다. 관객의 평은 그들의 연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며, 심지어 그들의 연기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평가는 바람직한 정치 수행에 필수조건이고, 민주시민의 덕목이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기독교적'인지 크리스천은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끝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이번 총선의 기회에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보자.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해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장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공약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옹호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임기 초에는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것일까? 사실관계를 따져서 지금이라도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일까? 또는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국가 정책과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는 없는 것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대운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할 말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참여의 모습인가?

총선이 지금처럼 엉망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같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참여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내용적 입장을 주장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적 정치 참여는 없게 된다. 현재의 한국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이 시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참여의 독려가 아니라 올바른 참여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은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시될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는 결코 형식적 정당성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준다. 그 지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분명한 주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는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는 장로 대통령을 가진 이 시점에서 더욱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회피하는 역할은 다른 이들이 해버릴 터이니 말이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근본적 반성의 계기를 가져보는 것이 어차피 엉망이 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를 혐오하지 말자. 정치란 말을 혐오하지 말자. ‘기독교와 정치’라는 말을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으로 여기지 말자. 정치는 함께 살아가려는 인간의 가장 단순한 삶의 방식에 기초를 둔, 인간으로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크리스천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 유권자의 제자도

정 지 응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

## I. 들어가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구약성서 사무엘하 23장 3~4절)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성서적 정치란 한 마디로 공의로운 정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같은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가 좌우된다. 그렇기에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정이다. 이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매 선거 때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독교공명선거대책위원회’, ‘기독교유권자운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그 동안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공민(公民)으로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도, 훈련받지도 못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두 명의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고, 여의도의 국회의원 3분의 1(112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지만 60년간의 이천투구(泥田鬪狗)와 같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복음의 정신으로 변혁시키기는커녕 당리당락과 정파의 이익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었고, 등불의 빛은 꺼지고 말았다. 단순히 장로가, 단순히 어떤 교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기독교 정치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두 명의 장로 대통령의 쓸쓸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이면서도 한편으로 독재의 오명이 늘 따라 다니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김현철 사건과 IMF 사건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퇴임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명목상의 기독교인 정치인이 아니라 진실로 회심했고, 소명을 따라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정치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적 제자도’의 초점은 온 국민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거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지배를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새겨진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래

서 정치적 제자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정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삶의 일관된 태도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sup>35)</sup>

그런데 ‘정치적 제자도’는 정치인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제자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신명기 17장 14~15절에서는 왕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선택 기준, 즉 백성들의 ‘정치적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다. ‘정치적 제자도’는 유권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호세아 8장에서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제자도가 정치인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세워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호세아서는 유권자가 ‘정치적 제자도’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 지도자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제자도’를 갖춘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먼저 ‘정치적 제자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적 제자도’의 핵심은 공공영역에서 요청되는 정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의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투표를 하여 왔던지 살펴 보기로 하자.

## II. 17대 총선 분석

### 1. 지역 - 지역주의 깨지진 않았지만 ‘부분 탈색(脫色)’

‘지역’. 역대 선거에서 투표 행위를 규정한 최대 요소다. 선거 승패는 주로 지역에 좌우됐다.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 타파가 명분이었지만, 늘 미제로 남았다. 17대 총선에서도 지역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 PK 선거 : 17대의 총선 결과는 PK 41석 중 한나라당 34석, 열린우리당 4석. 정당 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이 46.21%, 열린우리당이 32.12%를 얻었다. 역대 PK 선거 결과에 비추면 상당한 변화다. 14, 15,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과 전신인 신한국당이 사실상 짝꿍이었다.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와 이긋 출신 노무현 후보의 PK 득표율 차이는 35.90% 포인트였다. 17대 총선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격차는 13.09% 포인트다.

PK 선거는 다각적 요인이 작동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먼저 탄핵이라는 거대 이슈가 지역주의적 변수를 일정부분 상쇄시켰다고 진단한다. 탄핵을 고리로 더욱 부각된 ‘세대와 이념적 요소’가 지역 요소의 패권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아울러 3김 정당과 달리 특정 지역으로 고착되지 않은 열린우리당의 색깔이 영향을 미쳤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지역별 지지도

35)

안순우,

[http://www.yullin.org/People/YullinPeople.aspx?BoardID=YULLIN\\_PEOPLE&ViewMode=Content&Action=Navigate&Page=0&Index=102&Categories=1900\\_0&Contents](http://www.yullin.org/People/YullinPeople.aspx?BoardID=YULLIN_PEOPLE&ViewMode=Content&Action=Navigate&Page=0&Index=102&Categories=1900_0&Contents)

편차(표)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전국적 득표력을 보인 것도 이런 색깔 덕이다.

**2) 분석 :** 내용적 변화는 상당하지만 선거 결과는 지역주의적이다.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전멸했고, 열린우리당은 TK에서 전멸했다. 열린우리당이 경남에서 얻은 2석은 노무현 대통령 고향(김해)이라는 소지역주의적 측면이 내재한다.

탄핵정국 아래에서 지역주의가 큰 영향을 못미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풍’과 TK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바람이 불고 TK가 올라가자 호남이 올라가고, 다시 PK가 뜨는 연쇄 작용이 일어났다. 최종적으로 지역주의는 ‘깨질 것 같다가 깨지지 않았다’. 탄핵이라는 거대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다시 살아난 점은 지역적 균열이 언제든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3) 지역주의를 넘어 :** 민주노동당과 충청 선거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가 핵이다. 민주노동당은 조직과 돈, 홍보 등 모든 측면에서 열세였지만 분명한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를 치렀고, 결과는 전국적 고른 지지율로 나왔다.

충청지역에서 자민련이 몰락하고 그 빈 공간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둔 데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공약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주의 극복의 희망은 민주노동당에서 더욱 확연하게 감지된다. 전국 정당 득표율이 13.0%인 민주노동당은 영&호남 가릴 것 없이 10%대의 가장 고른 지지율을 기록했다. 감성, 이벤트 정치 홍수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유일하게 정책 선거를 펼친 측면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결과다.<sup>36)</sup>

## 2. 세대 - 20, 30대(代) ‘정치 주체’ 자리매김

17대 총선은 20, 30대가 변화의 주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가운데 ‘세대갈등 치유’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주고 막을 내렸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20, 30대와 50, 60대 사이에 극명한 ‘세대차’가 드러났다. 이같은 변화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또 다른 사회 갈등의 불씨로 해석되고 있다.

**1) 판갈이 주도한 20, 30대 :** 이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안겨주고 민주노동당을 일약 제3당으로 원내에 진출시켰다. ‘판갈이’의 주체세력이 된 것이다. 투표 직전인 지난 12일 TNS 여론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20대와 30대는 열린우리당의 ‘탄핵심판론’(49.1~56.8%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해 각각 50.4%와 44.9%의 지지를 보냈다. 정당지지도도 43~45.0%나 됐다. 민노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도 20%대를 유지했다. 반면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과 후보지지도는 10%대에 그쳤다.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20, 30대에게 탄핵이란 이슈는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을 씻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는 전형적인 ‘컬러 브라운관 세대’로 역대 여론조사에서 월드컵, 여중생 추모 같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특성을 드러냈고, 30대는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가 주축으로 가장 개혁&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36) <http://cafe.daum.net/2003ogum306/LI5S/420>



2) **견제 택한 50, 60대** : TNS 여론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22.8%를 차지하는 40대는 정당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 반분됐다. 전후세대인 이들은 유신세대부터 386세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이같은 특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0, 30대와 50, 60대의 균형추인 셈이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30.1%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세대는 같은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거여 견제론’(44.1% 찬성)에 큰 비중을 두며 20, 30대와 정반대의 투표성향을 나타냈다. 이들은 한나라당(후보&정당)에 37~39%의 지지를 보내 열린우리당 지지도(27~28%)를 압도했다. 민노당에 대한 지지도는 3~6%에 불과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전통적인 보수층과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실망한 계층이 주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제와 한국전쟁, 냉전시대를 경험한 세대로 ‘자기시대’에 대한 연민이 강한 계층이다. 정치적으로 ‘3김 정치’나 ‘지역정치’에 익숙해져 있으며 사회적으로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권위의 추락을 실감하고 있는 세대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세대 변수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17대 총선에 대한 세대 변수의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승리를 가져다주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젊은층의 투표 참여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 상승,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의 투표율 상승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젊은 층은 왜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것일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국가형성과 산업화 시기의 권위주의에 빚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화운동 세대는 권위주의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식을 가진 세대이며, 이후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나름대로 그 풍요와 자유를 향유했던 탈권위주의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결집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정치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다.

우선 이들의 집단적 참여를 자극했던 계기들이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사회운동에 더하여, 한일 월드컵 경기의 붉은악마 응원이나 촛불시위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킨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공론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정치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이들은 점차 현실정치 참여에도 나서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대안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성정치에 대항했던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후보가, 지역주의정치를 거부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을 때, 이들의 결집과 그 정치참여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우리 정치에는 아직도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 요소와 지역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젊은 층의 정치참여라는 새로운 변수의 개입으로 점차 희석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 분명한 결과를 17대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sup>37)</sup>

### 3. 계층 - 17대 총선, ‘계층 이익 최우선’ 성향 뚜렷

17대 총선은 ‘계층 투표’(계급 투표)란 새로운 화두를 남겼다. 지역주의나 세대 갈등이 ‘목은’

37) 정해구, “젊은 표심(票心)이 개혁 주도”, <http://cafe.daum.net/2003ogum306/L15S/421>

주제라면, 계층 문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부상한 ‘따끈따끈한’ 이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1당 경쟁, 민주노동당의 부상은 서울 강남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 울산 등지에서 경제, 사회적 배경에 기반한 계층 투표 성향을 뚜렷이 부각시켰다.

**1) 계층 투표의 전형, 강남벨트 :** 서울 강남 갑, 을, 서초 갑, 을, 송파 갑, 을, 영등포 갑, 을, 강동 갑, 양천 갑 등의 지역구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강력히 지지했다.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탄핵 역풍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정당 투표 결과 강남구에선 한나라당 51.7%, 열린우리당 29.1%, 서초구에선 한나라당 49.3%, 우리당 31%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는 서울 전체 정당 투표에서 우리당(37.7%)이 한나라당(36.7%)을 앞선 것과 대비된다.

특히 강남 갑의 한나라당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신사, 논현, 압구정, 청담, 삼성, 역삼, 도곡동으로 구성된 강남갑은 타워팰리스가 자리잡은 ‘대한민국 1%’ 거주지다. 이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서 한나라당(이종구)에 63%의 지지를 보냈다.

주목할 대목은 한나라당과 2위 후보의 득표율 격차다. 16대에선 한나라당(최병렬)이 56.5%, 민주당(전성철)이 36.8%를 얻어 격차가 19.7%포인트였다.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우리당(박철용)의 표차가 32.2%포인트로 훨씬 더 벌어졌다.

강남을 역시 한나라당 후보(공성진)에 57.5%의 득표율을 선사했다. 우리당(이환식)은 34.1%를 얻는 데 그쳤다.

서초갑&을은 각각 56.4%와 54.2%가 한나라당 후보(이혜훈&김덕룡)를 찍었다. 우리당(함종길&김선배)은 각각 29.5%와 36.3%로 분투를 삼켰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갑&을 서도 한나라당 고흥길(갑)&임태희(을) 후보가 각각 54.1%, 54%로 우리당후보를 이겼다.

**2) 계층투표는 왜? :** 사회학자들은 계층투표 성향의 강화에 대해 “가시화되고 있는 ‘20대 80 사회’의 반영”(연세대 김호기 교수)이라고 설명한다. 계층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익에 일치하는 투표성향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강남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지지성향은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 사회적 정책 방향에 불만 또는 불안감의 표출로 풀이할 수 있다. 강남 벨트에서 낙선한 한 우리당 후보측은 “부유층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느끼는 위기의식이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 말했다. 여권은 보유세 중과세와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검토 등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유세 중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곳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동갑이다. 이 지역은 우리당 이부영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으나, 의외로 한나라당 김충환 후보가 3.8%포인트차로 승리해 관심을 모았다. 두 후보간의 개인적 관계 이외에 주택업계에서는 “고덕동 등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연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참여 정부의 주택정책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시각이다. 강남 벨트의 한나라당 지지에 대해선 “계급적 투표성향에 ‘열린우리당은 급진적’이란 문화적 거부감까지 결합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sup>38)</sup>

**3) 민노당의 등장 :** 울산 북구 지역은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 공화국’이 됐다.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이상범)인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조승수)까지 배출했기 때문

38) <http://cafe.daum.net/2003ogum306/L15S/420>

이다. 조당선자는 46.9%의 지지를 얻어 한나라당 윤두환(34.4%), 열린우리당 이수동(17.7%) 후보를 앞섰다. 이로써 입법과 지방행정 양측 모두 민노당이 장악했다.

이 지역은 전국 243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민노당이 '정당득표 1위'를 차지한 곳이기도 하다. 35.4%의 정당득표율은 민노당의 지역별 득표 중 최고치다.

경남 창원에서도 민노당 지역구 후보(권영길 대표)가 49.8%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정당투표에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울산 북구의 조승수 당선자는 지역 유권자의 특징에서 승인(勝因)을 찾았다. "주민 13만명 중 약 5만명이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추산됩니다. 또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죠." 북구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의 협력& 하청업체들이 몰려 있어 해당 기업 직원들도 많이 거주한다.

북구 주민들은 또한 젊다. 평균 연령이 29.7세.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젊은 편이라고 한다. 지역주의와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세대가 주류란 얘기다.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계층에 기반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북구는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16대 총선에서도 민노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당시 개표 중반까지 선두를 달리던 최용규 후보가 막판에 577표 차로 역전패 당하면서 의원 배출을 4년후로 미뤘다.<sup>39)</sup>

#### 4. 이념 - 진보의 약진

17대 총선의 최대 이슈는 탄핵이었다. '박풍'과 '노인 폄훼 발언'도 주요 변수였다. 이념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협소했다. 그런데도 부유세 도입 등 진보 공약을 내건 민주노동당은 정당 투표에서 13.0%, 2백77만여표를 얻었다. 지역구(123곳) 후보의 득표율 4.3%의 3배에 가깝다. 17대 선거를 통해 '이념과 노선 정치의 맹아'가 싹 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도 있었겠지만 민노당 투표자 대다수가 정치적 성향과 입장에 따라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정당 득표율 13%는 도약 수준이다. 첫 진보 대선후보인 백기완씨가 1992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23만여표(1.0%)를 받았으니 10여년 만에 13배 증가한 것이다. 민노당의 핵심 지지층이 1980년대를 거치며 '이념'으로 무장한 386세대인 점과 무관치 않다. 이들은 1968년 프랑스에서 기성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68세대'처럼 나이 먹어서도 진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민노당 지지층은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60.7%(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사)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6.5%(4월 12일 TNS 여론조사)로 가장 높다.

논란은 있지만 16대 국회는 크게 보수와 중도로 나눌 수 있었다. 분당 이전의 민주당이나 이후의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개혁적 중도였다면 한나라당은 보수적이다. 그러나 이념지도가 변화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민노당에 대한 반작용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혁 경쟁이 작동한 결과다. 열린우리당은 진보적 중도로, 한나라당은 중도 보수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긍정적 관측이 우세하였다. 건강한 이념 경쟁은 적절한 긴장을 불러오고, 각 당이 정책개발에 나서게 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민주노동당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은 첫 시행된 정당투표제다.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을 따로 찍을 수 있는 이 제도없이 전처럼 지역

39) <http://cafe.daum.net/2003ogum306/LI5S/420>, 검색일, 2008년 3월 20일.

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했다면 1석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 2석 역시 1석으로 줄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정당투표제는 지역주의 투표성향과 ‘사표 심리’가 힘을 발휘하고, 남북 대치상황으로 진보의 입지가 좁은 정치풍토에서 이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했다.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아가 299개 의석 중 절반은 지역구, 절반은 비례대표로 해야 13%로 나타난 진보 진영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7대 총선이 보여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념 투표 성향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진보 세력은 정치사회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그 결과 우리 이념 구도가 ‘보수 대 중도’의 2각 구도에서 ‘보수 대 중도 대 진보’의 3각 구도로 이동했다.

이념 투표는 계급 투표와 함께 지난 20세기 서구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뤄왔다. ‘보수 대 진보’ 또는 ‘좌파 대 우파’는 어느 나라이건 이념의 기본 구도이며, 다당제 국가라 하더라도 각 정당들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어디엔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짧은 해방공간을 제외하고 정치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이념적 스펙트럼은 매우 제한돼 있었다. 냉전분단체제는 우리 사회를 우파 중심의 사회로 재편시켰으며, 사회민주주의까지를 포함한 좌파의 이념을 사실상 불허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보수와 중도를 양 축으로 한 한국적 이념구도다.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 대신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걸었으며, 보수 세력에 맞서서 중도적 개혁 세력을 표방해 왔다.

1987년 민주화는 시민사회 수준에서 이런 이념구도를 변화시켰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다양한 진보 사상들이 시민사회에 소개되고 뿌리내렸으며, 6월 민주화운동은 이 진보 사상에 시민사회에서의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된 ‘보수 대 중도 대 진보’의 이념구도가 정치사회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화의 한국적 경로가 보여준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sup>40)</sup>

### III. 18대 (2008년) 총선 예측

#### 1. 서울

한나라 완전 석권에서 통합민주에 19석 빼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전지로는 성동갑, 중랑갑, 중랑을, 강북갑, 도봉갑, 도봉을, 노원을, 서대문을, 마포을, 강서을, 구로갑, 금천, 영등포갑, 동작을, 관악갑, 강동갑 등이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종로에. 정동영 전 장관이 동작을에 전략 공천되는 등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천 파문, 인수위 활동의 실수 등으로 한나라당의 의석이 예상보다 줄어들 확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효과가 나타나 반 한나라당 지지표가 통합민주당 후보에게 쏠릴 경우 한나라당 의석 수는 29석으로 줄고, 통합민주당이 19석을 얻는 것으로 예상됐다.

합당 효과로 득표율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 19개 지역구는 광진갑·을, 중랑갑·을, 성북갑, 강북갑·을, 노원갑·병, 양천을, 강서갑, 구로갑, 영등포갑·을, 동작을, 관악갑·을, 송파병, 강동갑이

40) 김호기, “이념 투표, 한국 정치 정상화 단계”, 경향신문, 2004. 4.22.

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구들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중구,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송파갑 등 5개 지역구가 득표율이 20% 이상 앞서는 ‘당선 확실’ 지역구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의 ‘확실 우세’ 지역은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비롯, 용산, 성동을, 동대문갑·을, 성북을, 은평을, 서대문갑, 양천갑, 구로을, 강남을, 송파을 등 12개 지역구이고, ‘우세’ 지역은 은평갑, 마포갑, 동작갑, 강동을 등 4개 지역구, ‘박빙 우세’ 지역은 성동갑, 도봉갑·을, 노원을, 서대문을, 마포을, 강서을, 금천 등 8개 지역구이다.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는 강남권에서는 서초을(9 대 1)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대통합민주신당도 합당 효과로 역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에서는 내부 공천 경쟁이 뜨겁다.

## 2. 광주·전남·전북

통합민주당이 31곳 모두에서 당선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개의 지역구 모두 ‘당선 확실’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한 김홍일, 박지원 전 의원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 3. 부산·울산·경남

한나라 39석, 민노 2석, 통합민주당의 합당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이다. 부산 18개, 경남 17개, 울산 6개 등 전체 41개 의석 중 한나라당이 경남과 울산 각각 1석 등 단 2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을은 이번 조사에서도 ‘민주노동당 우세’로 나타났다.<sup>41)</sup>

## IV. 기독교인의 지역 분포도와 정치적 성향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서 26.4%,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서 8.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센서스」에 의해 밝혀졌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는 지난 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종교인분포를 객관적으로 집계한 최근통계다.

시도별 복음화율을 보면 전북이 2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서울(26.2%), 인천(25.8%), 경기(23.7%)순이다.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서 도민의 8.4%에 불과했다. 경남이 9.1%, 부산이 11.1%, 대구가 11.6%로서 이 지역은 인구 10명중 1명만이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타종교의 영향력이 높아서 기독교의 전파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전국민의 19.7%인 8백76만 명이며 도시지역의 복

41) 우충무, <http://cafe.daum.net/seoulhannara/AL6X/35> 검색일, 2008년 3월 17일.

음화율은 농어촌지역보다 5%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시(市)급지역의 복음화율은 20.9%이며 읍(邑)지역이 15.6%,면(面)지역이 15.0%였다. 이같은 「도고농저(都高農低)」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기독교인의 거주 지역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인 10명중 6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전국적으로 서쪽이 동쪽보다 복음화율이 높은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을 보였다. 기독교인중 서울 거주자는 전체의 30.5%인 2백67만 5천명, 경기는 20.6%인 1백80만 명, 인천은 6.8%인 59만 명으로 이는 한국 기독교인 전체의 58%에 이른다. 영호남권의 기독교인수를 비교해보면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호남지역의 인구는 영남의 40.9%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인수는 오히려 영남의 1백19만7천여 명보다 약 19만 명이 많은 1백38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의 복음화율이 영남권보다 약 2.1배 높은 것이다.

시군 단위로 세분할 때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진군으로 35.5%이며 익산시 33.9%, 울릉군 32.8%, 군산시 32.4%, 과천시 32.3%, 강화군 30.6%로 나타났다.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합천군으로 4.4%에 불과했으며 의령군(5.2%) 북제주군(5.9%) 남제주군(6.0%)도 저복음화 지역으로 꼽혔다. 이들 지역은 거대한 사찰이 있거나 무속신앙이 강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의 경우,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소망교회 광림교회 충현교회등 대교회가 밀집된 강남구(30.4%)와 서초구(30.1%)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성동구(21.5%)와 동대문구(21.6%)였다.

특별히 도서지역인 울릉군(32.%) 신안군(29.5%) 용진군(35.5%) 강화군(30.6%)의 복음화율이 높은 것은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또 육해공 군본부가 소재한 계룡대의 복음화율이 충남에서 가장 높은 30.9%로 나타난 것은 군복음화의 결실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의 「종교별 인구센서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복음화율이 높았으며 둘째, 수도권과 호남권의 복음화율이 높고 불교의 영향권이 강한 영남과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낮았고 셋째,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곳이 복음화율도 높았으며 넷째, 인근지역에 비해 특이하게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지역목회자의 헌신의 결과였다.<sup>42)</sup>

이상에서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의 지역 분포도에 의한 선거 경향은 일반인들의 경향과 거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호남에서도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남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기독교인이 많은 강남지역에서도 여전히 그 계층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17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다는 것과 18대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 12월 대선의 한국 교회의 정치 참여는 1. 기독교인의 기본적 정서인 장로 대통령 만들기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였다. 2. 이념적 반발이 작용하였다. 3. 기독교구조 해체 위협에 대항하는 이익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의 개신교 인구는 약 18.5%이며, 이중 유권자는 11% 정도이다. 이들 중에 투표를 한 기독교인은 7.5% 정도이고, 이들 중에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찍어준 기독교인은 5.4% 정도이다.

이명박 후보가 얻은 득표는 전체 유권자의 30%정도이며, 정동영 후보가 얻은 득표는 15.4%

42) <http://cafe.daum.net/lifelight/97UT/18>, 검색일, 2008년 3월17일

정도이므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14.6%의 초과분 중에서 기독교인의 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을 찍은 기독교인들이 모두 집에서 쉬고 있었다 해도, 이명박 후보는 여전히 유권자수의 9.2%, 실제 투표한 유권자의 14%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있어서 한국 교회의 기여는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의 한국 교회의 정치 참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나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심사숙고한 결과로 선택되어졌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냥 교회 자체의 사회경제적 입장과 이념적 입장에서 현실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이 마침 국민 대중의 선택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교회는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교회의 정치적 성향과 선택이 보수 기독교인의 입장에 가깝고 성경적관점이나 요청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 교회가 이명박 정권에게 심정적으로나마 유착내지는 동일시하고 있으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한국 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교회의 대사회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 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 교회는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보다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하고 교회 본연의 선교적 과제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sup>43)</sup>

교회가 하나님의 실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이익 집단적 실체로서의 특성을 더 많이 노출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몸부림이었기에 정치·사회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2007년의 교회의 대선 몰입은 그다지 환영스럽지 않다.<sup>44)</sup>

정리하건대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 교회의 영적 에너지가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기보다는 물질 에너지가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한 장로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평가로서는 그가 장로여서 지지했을 수도 있으나 현 단계 한국 교회의 정치적 성향(보수적)이 서로 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한국 교회(보수 대형교회)가 정치적 입장이나 의식차이로 충돌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가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승만(기독교), 전두환(불교)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가 각각의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 현상이 일군의 외국 국가와는 달리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했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가 기독교인이어서 지원했다기보다는 경제 살리기의 구원투수로서의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성패를 한국 교회와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집권기간 동안 한국기독교는 특히 조심하여야 하며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기독교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sup>45)</sup> 이는 선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3) 최은상, “이명박 정부와 한국 교회”, pp.1-2.

44) 최은상, “한국교회와 한국정치”, p.4.

45) 정지웅,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전망과 바람” 2008년 3월 8일 기독교 통일학회 학술포럼 Mensa Talk 발표 논문, p.14.

## V. 유권자 제자도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의 선출은 결국 유권자 몫이다. 4.9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선출에 있어서도 1인 2표제의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오직 유권자의 투표로 결정 된다. 오로지 심판자는 유권자뿐이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국회의원 선출기준은 소속정당, 정책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이다.

그런데 오늘의 정당에서 정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권영세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5당 대표가 참석했다. 정치 불신과 선거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각 정당 대표들은 총선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한 뒤 메니페스토 실천협약증서에 서명했다. 메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을 미리 제시해 유권자들이 공약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총선 20일을 남겨 놓고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후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후보자의 자질이다. 그러나 지역정당인 경우 비합리적이면서 감성적인 판단에 의한 유권자의 집중적인 투표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문제는 감정적 지역주의에 매몰되고 만다. 지역정당일수록 당의 실권자에 의한 일방적 공천으로 유권자의 선택의 권리를 제약한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4.9 총선은 각 당의 공천혁명으로 구시대의 인물을 탈락시키고 참신한 인재의 영입을 시도한 측면을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소속정당의 정책적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직접 유권자의 심판을 선택한다면 선거혁명은 유권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파벌정당, 지역정당, 1회용 정당의 과감한 해체를 통한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이념정당, 정책정당, 그리고 전국정당에로의 재탄생을 시도해야 한다. 선진한국의 새로운 정당의 탄생은 투표를 통해 참 일꾼을 선출하는 유권자의 의식혁명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도 그에 합당한 노력과 값을 치러야만 한다. 그것은 유권자 스스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숙고와 성찰의 과정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유권자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sup>46)</sup>

혹자는 기독교정당을 그 대안이라고 말하나 우리는 서구와 같은 기독교적 문화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또 오늘날과 같이 종교 다원화된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냉소를 당하는 시점에서 배타적인 기독교정당을 만드는 것은 타종교와 무신론자들의 반기독교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참다운 '정치적 제자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고 훈련받는 제자들이 소금이 소리 없이 녹아서 스며들듯이 다양한 성향을 가진 각 정당과 정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구현하는 일에 자신이 녹아져야할 것이다. 교회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영혼의 회심과 복음전파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과 함께 일상의 영역에서 진리를 바탕으로 한 공민(公民)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도

46) 최옥준, <http://www.news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7>, 검색일, 2008.3.19.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세계와 시대적 흐름을 아울러 통찰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재목들을 키워야한다.<sup>47)</sup> 다시 말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능력을 갖춘 사회지도자들을 교회는 양성해왔고, 앞으로도 양성해 갈 것인데 이것이 한 때 실패했던 기독교 정당보다는 한국적 상황에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에 서구와 같은 기독교 정당 설립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이는 자칫 선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치인을 선택하도록 하자. 첫째로, 민족통일의 과업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통일을 이룬 후에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선은 굶주린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 개방의 길을 모색하여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심한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이해와 인내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할 자세가 필요한 정치와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황금만능, 기술만능의 풍조 가운데서 물신(物神)과 기신(技神)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돈과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며,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영성, 도덕성에 있음을 일깨워 줌으로 21세기의 경제력과 과학의 힘을 사람을 살리고 돕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sup>48)</sup> 그리하여 경제를 잘 살리면서도 돈과 테크놀러지에 의해 왜소해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정치와 정치인이 필요하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현시점, 한국기독교인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깨어져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민족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등으로 인해 더불어 살기 어려워진 사회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치인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봉사과 희생, 중재와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한국의 기독교 유권자들은 21세기에 우리 사회에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화, 사회적 복지화, 문화적 성숙화가 이루어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치인과 더불어 교회가 앞서서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계층, 세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투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현대의 정당정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계층, 세대, 이념을 뛰어 넘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속성,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유대인에 속했지만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예수, 바울 등은 진정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 땅의 크리스찬은 신앙으로 재무장하고 동시에 신앙과 사회간, 교회와 사회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약자에 대한 사랑과 사회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는 적대구조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내면적 실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

47) 안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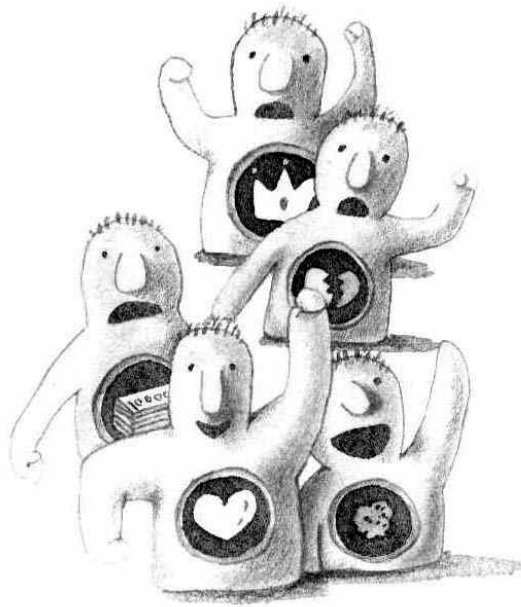
[http://www.yullin.org/People/YullinPeople.aspx?BoardID=YULLIN\\_PEOPLE&ViewMode=Content&Action=Navigate&Page=0&Index=102&Categories=1900\\_0&Contents](http://www.yullin.org/People/YullinPeople.aspx?BoardID=YULLIN_PEOPLE&ViewMode=Content&Action=Navigate&Page=0&Index=102&Categories=1900_0&Contents)

48) 이원규, [http://sbac.or.kr/press/topic\\_98\\_leewk.html](http://sbac.or.kr/press/topic_98_leewk.html)

사회에 있는 모든 적대적 관계를 불식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 유권자는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핵평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 없이 민족 내부의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 유권자는 통일에도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이런 올바르게 참된 일을 할 때 한국교회도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크리스찬은 내부적으로는 공의운동을 펼치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랑운동을 펼치고, 국제적으로는 평화운동을 펼쳐야 하며 우리 기독교 유권자들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새 언약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한 정치인을 뽑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2부

# 정치적 제자도를 위한 설교문



## 어떤 일꾼들을 선출할 것인가?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  
(로마서 14장 17절)

### 이 동 원

(기윤실 이사,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인물 퀴즈입니다. 이 분이 누구일까요? “이 분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에서 1300년대 말에 태어나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이십니다. 이 분은 로알 패밀리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분의 어릴 적 별명은 책 벌레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평생을 안질로 고생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드물게 정치뿐 아니라 문화, 경제, 과학의 영역까지 관심을 갖고 연구한 지도자이었습니다. 이 분은 이런 여러 영역의 진보를 위해 당시 지도자로서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발전시켰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스태프들과 무려 1,898회에 걸친 토론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고전 음악을 정리하고 발전시키었고, 당시 최첨단의 과학 기구들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이 하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한자 대신 과학적인 한글, 곧 훈민정음을 펼쳐낸 분이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요즈음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킹 세종이십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얼마나 목마르게 필요한지요?

오는 4월 9일 우리는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꾼을 선출해야 할까요? 이런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의 표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국가로서는 단순히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기회입니다만,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기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해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서라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을때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통치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제국은 물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선출하는 이 땅의 모든 일꾼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근접

할 수 있다면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그 실현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출하는 일꾼-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 1.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롬14:17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며 맨 처음 의를 강조합니다. 그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며 우리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드러남이 곧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공의롭게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주께서는 신4:8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물하며 그 사회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혹은 거기에 근접하는 법을 세우고 제정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출되어야 할 일꾼중에서 이런 법 질서를 세우고 시행하는 일에 더 합당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어야 하겠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얼른 분별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을 요약한 십계명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에 근접한 후보가 누구인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예비 후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십계명을 하나 하나 기억해가며 이런 이상들을 깨트릴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의가 아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도하며 완전한 후보는 없더라도 이 비전에 상응하는 보다 나은 일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 2.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의와 함께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가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라는 개념의 가장 소극적인 적용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움이 없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런 평화의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샬롬의 의미는 총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뜻하는 말로서 복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의 언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웰빙’입니다. 어떤 후보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하고 웰빙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것인가를 우리는 탐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은 두 가지 큰 숙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 조국을 이루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복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두 가지 과제가 다 샬롬과 관련된 우리 민족 사회의 숙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도 안되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도 없는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후보중 누가 평화로운 조국의 통일 그리고 행복한 복지 한국의 내일을 건설하는 일에 보다 책임자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선출해야 합니다.

### 3.하나님의 기쁨을 실현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라면, 평화는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더욱 강조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기쁨은 우리의 내면에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첫 부분에 보면 이 세 가지 덕목이 단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와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소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환난중에도 기뻐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환난을 넘어서서 진정한 기쁨을 실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화난을 겪어온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닌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환난 받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좀 더 즐거운 문화와 기쁨을 누리는 나라를 제공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선진 사회의 비전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코리아-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쓴 배기찬은 킹 세종을 가르쳐 “두 발은 코리아에 두고 두 눈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문명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코리아를 태양계의 지구로 만든 지도자”라고 평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투표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멘

# 새 시대의 지도자 갈렙

(여호수아 14장 6-12절)

## 민 종 기

(LA총현선교교회 담임목사, 풀러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갖은 감언과 약속을 남발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때로는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개탄스러운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국민은 냉소적인데 정치인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드러내놓고 선거자금을 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면, 왜 불법적인 시민단체의 행위는 방관하면서 우리는 탐압을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 좋은 지도자가 기다려지는 때

많은 지도자와 자칭 영웅들이 정치계를 채우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지도자들의 등장보다는 지배자들의 행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옛말에도 나라가 어지러우면 현명한 신하를 그리워하고 가정이 빈곤하면 현모양처를 그리워하게 된다(國難卽 思賢臣하고 家貧卽 思良妻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좋은 지도자들이 그리운 것은 이 시대가 어떤 때보다도 자칭 지도자이나 실상은 지배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참된 지도자의 부재가 오직 정치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풍토를 제공하고 있는지요? 기르지도 않은 지도자가 어찌 나올 수 있겠으며, 집단적 이기심과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사람들을 따르면서 지도자 탓만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와 백성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저주받은 시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사 3:4)” 하시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지도자가 사라져가는 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시대로부터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어간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좋은 지도자가 그렇게 흔치 아니한 시대였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이면서도 진실하고 온유한 종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비스가산에서 소천하였습니다. 입지전적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었으며 이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걱정스러운 일은, 여호수아가 용장이었지만 그 수하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퇴진을 앞두고 지도력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는 모세가 자신을 양육시키고 기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 기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지도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뛰어난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돕는 유다 지파의 장군,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점차 물러가는 사사시대의 초입에 갈렙은 그 지도력의 공백을 메꾸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지도력을 통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

여호수아 치세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순간에 여호수아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가공할 만한 거인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얼마나 유명하였는지 그 지명도 기랴트 아르바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산지들이라 함락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싸움에 자청하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온 민족의 핵심적인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맹목적이 아니라 믿음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새시대의 지도자로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갈렙의 지도력은 그 진취성에 있습니다. 그는 새롭게 다가오는 가나안의 정착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산지에 살면서 가시와 화근이 되는 아낙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회피함이 아니라 돌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85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젊고 전향적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전쟁에 출입할 수 있으며 강건하다”고 그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민족의 문제를 그는 먼저 파악하고 해결을 자청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나이의 고하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젊음과 열정입니다. 아무리 젊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과 행태가 구시대의 것들을 탈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새시대의 정치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연구하여 보십시오. 누가



지역구의 문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봅시다.

둘째, 갈렙의 지도력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그는 변치 않는 믿음과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지도자는 시간을 두고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렙은 과거나 현재의 전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지도자 역할을 자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앞에 서기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며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 백성들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에도 변치않는 믿음과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여전히 아낙 사람과 크고 견고한 성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위원이 될만한 사람은 자신의 역사로 앞일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비리와 부정을 일삼던 사람이 갑자기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적을 옮겨가면서 자신의 이를 취했던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우매한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 주장하던 것을 쉽게 내던지고 말을 바꿔서 하는 지도자를 또 뽑아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는 일관성이 있는 지도자, 소신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갈렙의 지도력은 희생을 불사하는 지도력입니다. 그는 헤브론 산지의 요새들과 아낙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아낙 사람이란 거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쳐서 함락시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의 심장부를 돌파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기랏 아르바를 쳐서 승리를 거두고 거인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냅니다.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기랏 세벨을 쳐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걸어 이 도성을 취하는 자를 사위로 삼으리라고 합니다(수 15:16).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갈렙은 이제 자신의 가장 귀여운 여식을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옷니엘이라는 사위를 부상시키게 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통해 치부하려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에 손이나 벌리면서, 지역사회에 기생충처럼 금전을 뜯으면서 이권이나 챙기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면 우리 국민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정치인은 큰 머슴, 공복(公僕)입니다. 국회의원이 공복(空腹), 즉 “허기진 배”가 되어서 국민의 혈세나 낭비하는, 혹은 본전생각으로 선거비용으로 쓴 돈을 다시 벌려고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지 백성을 누탈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갈렙은 겸손함으로 주변을 세우는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말씀의 후반부는 매우 의미 깊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통치의 마지막에 갈렙이 등장하고 그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축복하면서 싸움에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갈렙의 승전으로 가나안에 전쟁이 그치면서 평화가 옵니다.

그는 실제로 여호수아에 묻혀서 드러나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조연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오랜 동안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여호수아를 돕지만 그는 여러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승-승의 인간관계를 이루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 그의 지도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평화를 엮습니다. 아울러 그는 사사시대를 담당할 첫 사사 옷니엘을 역사상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자신의 사위로서 자신과 함께 전쟁의 개선장군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을 기르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면서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저가 주변의 사람을 잘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는가? 우리 정치의 치명적인 단점은 기성 지도자들이 사람을 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의 명예와 권력을 독식하고 지도자들 밑에서 사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아니 “제 2인자 죽이기”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 용납 못합니다. 자라나는 사람들은 눈치만 보는데 익숙하고 줄서기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 즉 조직상의 위계에서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동역자들, 그리고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독재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절대로 국민을 민주적으로 섬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 새 시대는 새 지도자를 부른다

시대는 이제 새 천년으로 점점 깊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면서 새로운 참여와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는 도래했지만 우리의 정치인은 아직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선거현장 곳곳에는 아직도 금권과 관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와 공정한 정치문화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갈렙의 정치적 의미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생기는 지도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며 자신이 키운 지도자 옷니엘을 통해 새로운 사사시대를 여는 사람이 됩니다. 갈렙이 아낙자손에게로부터 빼앗은 헤브론은 나중에 유다지파 출신 다윗의 최초의 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족 유다 지파는 갈렙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그의 이름은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충실한 개처럼 여호수아에게 겸손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섬겼고, 또한 백성과 후대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새시대가 도래하는 이 전환기에 우리는 좋은 정치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하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고 선거에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돈에 매수됨으로 권리를 양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선심과 향응에 응하지 말고 준엄하게 꾸짖읍시다. 셋째로는 공정한 선택을 하십시오. 망국적 혈연이나 지연은 확장된 이기심입니다. 지연이나 혈연만이 선택의 전부라면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요, 우리는 나쁜 지도자를 통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 인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시대는 시민의 새로운 선택의 방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큰 근심을 할 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10장 1-4절)

## 임 성 빈

(기윤실 정책평가위원장, 장신대 신학과 교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다룬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여러분 이보다 더 담대하고 확신에 찬 신앙고백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이상스러운 것은 이렇게 확신에 차있던 사람이 곧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롬9:1)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던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 하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큰 근심은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근심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근심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위한 근심은 신앙의 성숙과 함께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합니다.(고후 8:9-10) 그 근심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낳는 근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구원받고 잘 먹고 편안히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써 없는 자들과 나누며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닌, 즉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은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자손이며, 모세의 후손으로서 십계명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율법의 정수를 전수받은 그들이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롬10:2-3)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신앙인은 결코 나-중심적인 생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은 이웃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엄청난 신앙고백을 하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이웃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못 받음을 탄식하는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열심은 오히려 그들을 교만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마저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란 나-중심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족구원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향한 절절한 사랑도 결국은 세계 선교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결단

이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여야 할 삶의 궤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 절절히 근심하여야 할 기도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민족과 함께 지향하여야 할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며,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소비문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민족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18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여야 할 삶의 궤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이웃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궤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총선에 임하는 우리의 궤대, 즉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결코 냉소적이거나 도피적인 태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비록 타락하였으나 그것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 하였던 귀중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요 3:17)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를 선택하는 것, 특별히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가 좋은 도구인가를 분별하는 선택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위하여 근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치에 나서는 이 유가 개인적인 야망의 달성에서가 아닌 민족구원을 위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을 우리는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의 하나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민족구원의 사역은 결코 자신의 의만으로, 자신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철하고도 겸손히 깨닫고 있는 사람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국민모두의 협조와 하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힘들다는 솔직함과 공동체적인 협력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민족구원의 비전을 세계구원의 비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만의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선교도구로 들어 쓰시려 하심이라는 비전을 세속적인 차원에서나마 감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에게서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입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심하며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근심어린 차선의 선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에 대한 낭만적인 믿음과 기대를 버리고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대적 신뢰와 충성의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떠

한 지도자도 우리의 절대적 신뢰와 충성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섬김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차선의 선택이 이 상황 속에서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북돋우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와 너의 선택이 어우러진 결과로서의 우리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삼위일체적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써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큰 근심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기 어렵다는 작은 근심, 존경하며 뽑을 사람이 없다는 작은 근심이 아닌 민족구원과 세계구원을 위한 큰 근심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민감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작은 근심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큰 근심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투표 시에는 최선의 자세로서 차선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확정된 후에는 ‘큰 근심’으로써 그 지도자와 함께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 사도 바울이 감당한 십자가의 제자도

## 노영상

(기독교윤리연구소장, 장신대 신학과 교수)

### 1. 프롤로그 : 사도행전의 대강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에 퍼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1-12장에선 베드로와 야고보가 중심인물로 나타나며, 13-2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 15장 이후엔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초점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 바울로 옮겨지는 것이다.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주류적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도 속하지 않았었다. 바울은 비주류적이며 국외자인 시야에서 기독교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유대교를 개혁할 수 있게 한 것 같다.

### 2. 유대기독교의 세계화에 앞장선 바울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원인이, 비주류 제자인 바울의 전적인 노력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전원적인 기독교를 도시적 기독교로 전환시킨 장본인이다. 바울은 당대 가장 화려했던 도시들인 에베소, 빌립보, 안디옥, 고린도 등의 도시들을 선교 스테이션을 정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선교하였다. 오늘로 말하면, 로스앤젤레스, 뉴욕, 런던, 모스크바, 파리, 로마, 북경, 이스탄불 등을 전도하리라고 마음먹은 것과 비슷하다. 그는 이와 같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전도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교통과 통신이 좋지 않았던 1세기에 그와 같은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바울 시대의 대다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기독교가 유대교 내의 종교로 남아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11:1-3).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힐난한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파(히브리파) 기독교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중심이었던 헬라파 기독교공동체가 갈등하였음을 묘사한다. 그것은 유대특수주의와 세계보편주의 사이의 갈등이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 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할례파였던 반면,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비할례파였다. 또한 그들은

율법준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 바 있다(행 15:19-20).

야고보는 유대와 기독교공동체의 수장이었으며, 바울은 헬라파 기독교공동체의 수장이었다. 이에 있어 베드로는 중간적 입장에 서있었던 것 같다. 7집사들은 주로 헬라파 지도자들로서, 그 같이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사도들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행 6:1). 스테반 등의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박해 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반면, 유대와 기독교인들은 박해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다. 이 같은 양파의 의견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의 잠정적 타협안에 의해 중재되고 있으나, 그러한 갈등은 안디옥 사건을 통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2:11-14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문제를 놓고 베드로와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다 유대와 기독교인 들어오니, 그는 바나바와 같이 물러났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베드로를 향해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역사의 중요한 계기는 다수의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류사의 모든 창조적인 발전과 변화는 언제나 생각하는 소수에게서 배태된 것이지, 다수의 대세에서 나오지 않았다. 바울은 로마서 3:2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엡 2:12-20).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당대의 유대 기독교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는 유대 지경을 넘지 못하였던,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에 앞장선 자였었다.

### 3. 유대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에 있어 바울 앞에 놓인 난관

먼저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상당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는 예수를 증거 하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선 사람이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기독교를 별 생각 없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창조와 개혁은 고뇌와 갈등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편한 상태에서 오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다. 그러한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변화시켜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를 통하여, 자신의 전 존재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울에게는 또한 외부적인 갈등도 있었다.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님을 깨달았으나, 당시 대중의 생각은 그와 같이 않았다. 특히 유대인들 중의 어떤 이들을 바울을 심히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사도행전 23:12는 40여명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를 만들었음을 언급한다(행 13:44). 이와 같이 개혁을 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가 않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지만,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을 때도 종종 있다. 바울은 여러 가지의 난관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만 했다. 사도행전 24:5-6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아오니.”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26:24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다. 언제나 새로움의 선봉에 있는 사람은, 남에게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한 외로움에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새로움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4. 사도 바울이 감당한 십자가의 제자도

바울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였던 것 같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진정한 사도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은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고후 3:1). 고린도후서는 눈물로 쓴 편지로 이 같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충을 설명한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그것에 자격 없다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엔 그의 내면적 일에 대한 열정만이 그러한 비난을 이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소명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적인 간판이 아니다(고후 3:7-8). 그는 그의 약함에서 강함을 바라보았다(고후 11:30).

창조적 소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 인정받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인류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기술은 대중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심각히 회의하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신의 결단대로 나가는 자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자만이 자신의 현실을 개혁할 수 있다. 과거만을 보고 과거만의 자랑을 늘어놓는 자는 결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고후 4: 17).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바울의 생각이 그를 새로운 것을 향해 정진케 하였던 것임에 틀림없다.

바울은 그의 생애 중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보다 더욱 자신의 생각을 변혁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바울이 감당하였던 십자가를 소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에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 자였다. 바울은 작은 예수로서의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

#### 5.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와 17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설교를 비교하면 서로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과만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하였던 반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세계 및 우주적 구원과 연관되는 분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서, 이런 세계화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한 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사도행전은 말한다. 곧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바울의 생각과 결정에는 항상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였던 것이다. 성령의 이끄심이 창조적 발전을 야기하였던 것이다(행 13:4, 16:6, 1:8). 남이 뭐래도 밀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으려면,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며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가 가는 길엔 성령의 경험들이 함께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감옥 문을 열어 채키셨으며,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경험을 그는 하게 된다.

## 6. 에필로그 : 멜리데 섬의 바울

사도행전 28장은 멜리데섬에서의 바울과 그의 아름다운 추억을 소개한다. 멜리데섬은 오늘의 몰타섬으로 추정된다. 그 섬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종식을 알리는 1989년의 몰타협정이 부쉬와 고르바쵸프 사이에 체결한 곳이다. 바울은 포박된 채 선교를 위해 로마로 갔다. 그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로서, 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풍랑을 만나 죽게 된 276명의 사람들을 구하였으며, 그 섬에서 하나의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28:3-5).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주지 못하였으나, 멜리데섬의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였고 그에게 후한 대접을 하였었다(행 28:10). 그곳은 바울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었다. 그날 바다에서 살아나와 피웠던 모닥불은 그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모닥불에서 튀어나온 독사가 그를 물었으나 당황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넘어서는 작은 부활절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

누가 알아준다고 하여 잘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바울과 같은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사양하지 않고 지고나갔다. 그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그에 의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섬기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49)

(마가복음 10장 41-45절)

김 회 권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정치”의 시절에 접어들고 있다. 4.9 총선을 앞두고 유무형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들과 후보자들의 각축도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정치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무한 각축의 현장에 뛰어든 정치가들은 정치권력의 효용과 위험을 어느 정도의 균형감각을 갖고 파악하고 있을까? 격렬한 각축과 경쟁을 통해 획득된 정치권력은 시민들에게 심각하게 해악스럽고 파괴적일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상 외로 정치권력의 악마적 속성이나 배반적인 본질에 대하여 무지할 때가 많다.

우리는 오늘 정치권력에 대한 성서적 입장을 살펴보고 정치권력의 비인간화를 막기 위하여 성도가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목상해 보고자 한다. 정치권력의 비인간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정치에 있다. 메시아적 권력 행사가 성도들의 정치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유권자들의 정치가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 정치권력에 대한 성서적 입장은 무엇인가?

정치란 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회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정치의 목적은 재화와 용역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혹은 준합법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있다. 정치는 집단이나 계급의 통제되지 않는 이기심과 욕망의 정제되지 않는 각축장이기 때문에 집단이나 계급을 대표하는 정치가는 거짓말쟁이 협잡꾼 혹은 괴뢰치범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는 거의 도덕적 슬럼지대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정치는 권력을 통해 이뤄진다. 이런 정치권력에 대한 성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49) 이 글은 주요 부분은 인문학 잡지인 <현상과 본질> 2007년 10월호에 투고된 원고다.

몇 가지 명제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서는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신적 대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서는 이 하나님의 신적 대권이 잠정적으로 인간에게 위임되었다고 본다. 창세기 1:26-28(창 2:15)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다. 야생의 피조세계를 인간화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도록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첫 인류의 사명이었다. 인간과 피조세계 안에 내재된 야수성을 순화시키고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황무지를 경작지로 만드는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종의 정치활동이었다.

셋째, 성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땅으로 돌변한 후에는 인간의 악을 응징하는 권력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봄으로써 정치권력의 강제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소외되고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기주장 의지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 때부터 이 세상은 “만민의 만민에 대한 늑대 상태”(homini lupis homini)로 굴러 떨어졌다. 창세기 9:5-6은 피흘린 자의 죄책을 추궁하는 하나님의 사법적 추적의지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 피 채 먹는 자나 무죄한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린 자를 추적하되 다른 사람을 통해 징벌하신다. 결국 이 두 절은 형벌소추권과 형벌집행권을 갖는 강제적 국가기구의 활동을 상정하고 있다.

## II. 정치권력에 대한 성서적 통찰과 그것에 대한 경계의식은 무엇인가?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성서의 일관된 입장은 권력의 전제화, 강압적 권력체제의 영속화에 대한 부단한 경계다. 이 점은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삼상 8-12장). 주전 10세기 경에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 부족연맹체로 약 200년간 존속해 오고 있었다. 이 때는 전제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되고 한시적이고 비세습적인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다. 그런데 두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들이 왕정을 출현시켰다. 첫째는 부족 사회 내에 빈부 격차가 생겨나면서 사회적 분화가 일어난 것이다. 즉 안전보장에 대한 염려를 최우선시하는 부자들과 유력자들이 등장한 것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체제와 확고부동한 관료체제를 원하였다. 둘째, 이 내적 요인과 밀접하지만 왕정 출현에 더욱 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한 동인인데 그것은 점증하는 외부 세력의 침략 위협이었다.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안전을 위협하자 이스라엘의 유력계층들이 일어나 이스라엘도 다른 가나안의 국가들처럼 상비군과 관료제도를 가진 전제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삼상 8:6-18).

하나님께서서는 중앙집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 왕정을 신정통치의 이상을 배척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다(삼상 8:6-7). 하나님의 신정통치에 대항하여 일어난 전제왕정 체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삼상 8:18)였다. 하나님께서는 전제권력을 행사할 지도자의 출현이 이스라엘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사무엘은 왕이 상비군과 관료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상대로 징병과 징세를 강요할 수 있는 전제적(專制的) 지배자

가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왕정이 도입된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은 권력남용과 권력강제를 통하여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유혹 앞에 부단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경고는 후대의 역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런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 왕의 출현에 대한 성서의 부정적인 입장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곳이 사사기 9장의 요담의 나무 우화이다. 사사기 9장 7-21절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복형이자 교만한 왕위 참칭자인 아비멜렉의 패륜적인 왕위 등극을 비판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정죄하는 유명한 우화를 담고 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외가의 친인척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제 70명의 왕자를 학살하고 세겜에서 왕정 시작을 선포하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한다. 이 세겜 학살에서 간신히 피해 살아난 요담은 그리심 산(신 27장)에 올라가서 인간 왕정의 우스꽝스러운 시작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한 세겜 사람들의 양심을 고발하는 나무 우화를 말한다. 나무들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차례대로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 줄 것을 간청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어찌 내가 가진 고유 역할과 가치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9, 11, 13절)라고 대답한다. 이들은 나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나무들 위에 “요동하는” 것으로 경멸적으로 표현한다(비교. 사 7:2).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는 것은 나무들 위에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왕이란 존재는 나무들(유력 계층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들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9:14). 가시나무는 지도자적 덕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인물인 아비멜렉을 가리킨다. 나무들이 그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정녕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다그친다. 그늘에 피한다는 것은 왕이 제공하는 안전보장을 누리고 대신 복종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시나무는 처음부터 전제통치를 기도(企圖)하고 있다. 하나님 대신 세워진 전제적인 인간 왕은 결국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나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가시나무인 셈이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을 찌르듯이, 인간들 위에 세워진 왕들은 전제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시민들을 찌르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 III. 성서적 정치권력의 사용-메시아적 정치 권력

그렇다면 성서가 상정하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정치권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의 정치권력에 대한 통찰과 그가 시범으로 보인 메시아적 권력행사를 통해 성서가 상정하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정치권력을 그려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의 정치적 갈등과 분쟁의 한 복판에서 격랑을 일으킨 분이였다.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 권력과 정치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였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의 정치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죽임 당한 사람을 구출해 내는 대항정치운동이였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당시의 주류 정치세력들의 통치 정당성을 빼앗아 가버리는 아주 위험하고 거룩한 도발이였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친정 통치는 그동안 인간에게 위임되었던 정치권력을 박탈하는 운동이었기에 종교적으로 인간 정치의 소멸을 가져오는 운동이였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하여 당대의 모든 세상 권력자들이 거의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 도래하였다”는 예수의 선언은 하나의 중립적인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거짓된 왕들을 보좌로부터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요, 앙시앵레짐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예수 당시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당, 열심당원, 사두개인, 로마 총독부 등은 원래 단일한 세력으로 제휴하거나 연대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이었으나 “예수”라는 엄청난 하나의 공공의 적을 대면하고서 동지처럼 단결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예수 대적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한결같이 권력의지의 화신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의 권력의 힘에 의지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세력들이었다.

이에 비하여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권력의지의 영원한 포기였으며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바치는 자기 비움이요 자기 비하였다(빌 2:6-11). 예수의 권력의지의 포기는 유대 광야에서 마귀와 백병전을 벌일 때 이미 실현되었다. 나사렛 예수가 광야 시험에서 선택한 길은 권력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포기와 비움을 통한 섬김의 길이다. 예수는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면서 하나님 아들, 즉 메시아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시험하였다. 여기서 시험의 본질은 권력을 휘두르는 메시아(카리스마, 기적 능력, 특권적 권능 호소형 메시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비권력적 메시아가 될 것인가였다.

유혹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특혜적 권능과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마귀의 정의는 특별한 권능의 남용, 특별한 보호의 향유, 그리고 부귀 권세 영화의 독점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됨은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 복종함, 특혜 대신 비특권적 겸손, 그리고 부귀영화권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위한 자기희생을 의미하였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충성심이었다. 여기서 그의 일생을 특징짓는 예수의 신적 겸손과 자기비하가 시작된다. 마귀에게 절하지 않은 결단이 그로 하여금 권력자형 메시아의 길 대신에 수난과 모욕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비권력적 메시아가 되게 하였다.

이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이상적인 권력행사는 나사렛 예수에 의하여 구현된 메시아적인 권력 행사이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제를 가졌던 그 비권력적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 메시아(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번역)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예수의 중심 메시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친정(親政)통치 시대의 도래였다. 메시아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감춘 비권력적 섬김과 순종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낮추었기 때문에 예수는 당대의 정치권력들의 권력행사 행태들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 왕에게 위임된 지도력이 필연적으로 지배력(권력남용과 권력강제)으로 변질되는 점을 직시한 것이다. 예수 당시의 세계는 로마제국 황제 가이사(Caesar)의 권력강제와 권력남용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눅 3:1-6). 좀더 국지적으로 보자면, 예수의 고국은 헤롯 가문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력강제와 권력남용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지어 예수의 12제자들도 이런 이방 지도자들과 같은 ‘권력정치가’가 되려는 야심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마 19:28; 막 10:35-40).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스승 예수가 그곳에서 당하실 고난을 도외시한 채, 그들은 영광 중에 메시아 왕국

이 임하면, 왕이신 예수의 옆자리에, 즉 큰 자리에 앉으려고 각축했다. 그런 권력지향적 제자들을 불러 놓고, 예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메시아적 권력의 본질을 가르치신다. 예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영광과 권능 중에 임할 때, 즉 예수가 왕으로 등극할 때, 자신들을 왕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자, 10제자들이 격분한다. 이내 제자공동체는 “누가 크냐?”, “누가 왕이신 예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인가?”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인다(막 10:35-37). 이 다툼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끼어든다. 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자신의 권력, 즉 섬기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준다.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2-45)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예수가 당시의 로마제국과 헤롯 가문의 통치 본질을 권력 강제적 통치(kata-kurieuw[카타큐리오, “임의로 주관하다”])와 권력남용(kata-exousiazw[카타엑수시아조, “권력 남용”])이라고 정의하는 장면이다. 41절의 “소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다. 헬라어 원어 문장을 직역하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예수에 따르면 권력강제와 임의주관(권력남용)을 통하여 지배하는 사람들은 소위 순전히 외견상의 집권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제로 지배하고 억압적으로 내려 누를 뿐이지, 마음의 승복이나 복종을 얻어내지 못한다. 예수는 자신이 대안적인 지도자라는 자의식을 공적인 맥락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다. 예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규정한다.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그가 목자없는 양같은 무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자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여기서 예수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는 성서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면, 에스겔 34장(특히 2-21절)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정치가들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라고 단죄되고 있다.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던 것이다(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들(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한다.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14-16절), 예수는 요한복음 10:11-14에서 자신이 바로 이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육화시킨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당시에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목자없는 양같은 무리들에 대하여 애끓는 연민과 긍휼

을 느꼈다. 법과 체제의 보호 바깥으로 밀려난 자, 그 당시 정치-종교 기존체제 안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된 대중들, 그들이 예수께 흡인된 무리였다. 예수가 그들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다스림 안으로 초청하였을 때, 이미 그는 당대의 종교적인 지배세력과 충돌하는 상황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예수는 무리들의 질병을 고쳤고 그들을 점령한 귀신들을 축출하였고 그들의 문드러지고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하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다. 예수는 그들을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넘치는 애찬의 식탁으로 초청하였고 그들과 기꺼이 한 통속이 되어 주셨다. 예수는 당대의 소위 집권자들의 권력강제와 권력남용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어린 돌보심(loving care)을 육화시켰다. 예수의 권력은 **선한 목자**의 권력이었다. 예수는 목자없는 양같은 민중들,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체제 밖의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선한 목자였다. 여기서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11-14에서 사용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전투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선한 목자는 수탈당하는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는 과정에서 거짓 목자들, 샓군 목자들, 그리고 이리 떼들 및 맹수들과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벌인 논쟁, 당대의 권력자들과 벌인 각축과 긴장어린 갈등은 양떼들을 지키고 먹이려는 선한 목자의 거룩한 전투성의 과시였다.

그렇다면 예수의 권력행사는 그 시대의 권력강제와 남용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던 지배자들과 어떻게 다를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2:6-11은 예수의 메시아적 권력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철두철미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친정통치만 선포하였다. 자신을 영(zero)으로 비우고 감추고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100% 발현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대표하고 대신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다.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축소시키고 부정한 그 모습이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예수가 반역한 천사들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치권까지 구사하게 된 근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춘 메시아,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a man after God's heart)였다. 그는 첫 아담과 달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그 무엇으로 간주하지 않고(something to be robbed/grasped)(창 3:5-6),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다. 이 예수의 길은 권력의 비절대화였고 비신화화였다. 겉으로 볼 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권력강제자들이요 권력남용자일 뿐 아무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지만 예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벽하게 낮춤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된 것이다. 성서적인 권력행사의 전범인 메시아적 권력행사는 자기비움과 희생과 섬김을 통한 비지배적이고



비전제적인 권력행사이다. 가장 적은 권한으로 봉사를 극대화하는 정치야말로 메시아적 권력 행사에 근접하는 정치인 것이다.

## 결론

정치권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도구이지만 이 두 으뜸계명에서 이탈한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도구다. 이번 4.9총선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골라내는 정치연습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당, 종교, 신념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덕을 누가 잘 대변하고 구현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여 신성한 주권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성도의 한 표가 나라의 명운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치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오 오르는 후보자를 선별하여 국회로 보내는 몫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탁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정치와 선거는 종말에서부터 역사 속으로 역진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생활 연습이 되기도 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식이 되어 인간의 모든 탐욕과 권력욕을 무장해제시키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사치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지도자들 선출하는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느헤미야 같은 위정자를 택하라!

(느헤미야 5장 1-19절)

신 원 하

(기윤실 신학위원, 고신대 신학과 교수)

## I. 들어가면서

### 천국 시민이자 땅의 시민인 성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심을 잘 살펴 민의를 대변하고 국정에 반영할 공복이자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정의와 평화를 도모하고 약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찍이 화란의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땅에 있는 어느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의 각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높은 수준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적용해 나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닌 시민들입니다.

### 오해되고 있는 정교분리라는 신념

그런데 우리 교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교분리(政教分離)’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영혼구원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이 꽤 오랫동안 교리 아닌 교리로 꽤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말은 본래 미국 건국시 헌법조문에 삽입된 구문인데, 그 본래의 뜻은 한국 교회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나 교파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별개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종교와 인종과 문화를 지닌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양한 성격

과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을 통합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건국 초기부터 어떤 특정 종교나 교파의 영향에 따라 나라 정치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구를 헌법에 넣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가 제공하는 도덕과 가치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에서 볼 때, 시민들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를 국가와 사회에 반영할 권리와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위정자들은 이것을 귀담아 듣고 선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사회를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이고 사회적 제자도를 실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특정 정파나 정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권이나 정당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 공의를 짓밟고 평화를 깨뜨리는 정치를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교계 지도자들은 개 교회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당, 인물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전도와 사역 대상은 모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다른 편으로부터는 외면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정치가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과, 또 그들에게 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는 책임있는 시민이 되도록 안내하고 돕는 일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18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 유능하고 덕망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무엇보다 좋은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우리의 책임 역시 크고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더욱 분명해 집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유다가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휘파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증흥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느헤미야의 자세와 자질을 살피면서, 우리가 택해야 할 정치가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II. 본론 :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태도와 덕목

### 국가의 곤경을 보듬고 개혁시키고자 하는 마음

첫째, 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수치를 자신의 아픔과 수치로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은 B.C. 587년 경에 유다를 정복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8년 경부터 3차에 걸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스톱바벨과 에스

라의 인도 아래 1차 2차에 걸쳐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갔고,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여전히 붕괴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성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위협을 느낀 주위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여 성을 훼파하고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 “앓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의 **심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수치를 자기 자신의 수치로,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시중을 맡은 영향력 있는 직책을 지니고 있었기에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편안한 생활과 영화보다는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민이 당한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자신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애통하였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 하였습니다(2:1-2).

이런 민족을 향한 사랑과 빛진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느헤미야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 자신을 고토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민족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자신의 회복으로 동일시(identify)한 인물이었고,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민족을 더 앞세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국가를 이끌 수도 없고 이끌어 서도 안됩니다.

오늘 국사를 다루고 결정하게 될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의 유익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아픔과 국가의 손해를 자신의 아픔과 손해로 간주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하고자 한다면 결코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당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결국 그것만큼의 반대급부를 챙기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심이 없이 나라를 위해 나서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준은 후보자가 얼마나 돈들이지 않고 선거를 치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제를 파악하는 분별력과 해결하는 능력

둘째, 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자기가 속한 그룹과 개인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discerning ability or power)을 지닌 자라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일시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잘못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1:6-7). 이는 나라와 백

성이 피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디가 병든 부분이고, 어디서부터 수술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방법도 알았습니다(1:9).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대로 행하면 나라가 재건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낱을 정해 백성을 모이게 하고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정책으로 시행했습니다(10:39; 13:1-31).

느헤미야처럼, 우리사회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발전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자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정치지도자라면 오늘 우리 사회안에 계층 간의 경제적 양극화와 세대 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이 과연 경제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그에 맞춰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 목표 ■ 향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는 힘

셋째, 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2:17-19).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귀환한 후 성벽 재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 역사에 동역할 인재들과 위정자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작업을 위하여 먼저 혼자 밤에 나가 훼손된 성벽을 일일이 돌아보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분석합니다(2:11-16). 그리고 난 뒤 적절한 기회에 방백들과 거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를 설득하였습니다(2:17).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작업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설득과 동기부여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당한 현실이 이렇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당한 곤경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조국의 현실의 참담함과 수치스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자신과 백성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일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과 그 자신을 운명공동체로 부각시키고 난 뒤 느헤미야가 건축할 것을 호소하자, 백성들은 일제히 건축의 대열에 함께 가담함으로 느헤미야의 호소에 호응하였습니다.

지도자는 국가를 함께 경영하고 이끌어 나갈 일꾼들과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일을 의욕적으로 해 나가도록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인재들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부 그룹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또 비현실적인 이상을 너무 앞세웠을 때,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가 현실과 상황을 세밀히 조사한 후 공감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도덕적 권위를 지닌 인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합시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도덕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어야 합니다 (5:1-19).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외부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위시한 주변 민족들이 집요하게 방해로 하였지만 그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도 방해의 요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자들과 귀족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자를 받음으로 생활고를 가중시켜 가난한 백성들은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들려오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놓고, 국민간의 불화를 초래한 것에 분노를 표하면서 그들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가 질책하였을 때 이들은 반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점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꾸짖을 때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도 받지 아니하고 성벽 건축을 위해 헌신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관리들은 느헤미야의 깨끗한 삶과 사심없는 자세에 압도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깨끗한 삶에서 나오는 도덕적 권위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 줍니다. 삶이 따르는 지도자의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갖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도덕적인 힘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때 국민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 III. 나가면서 : 바르게 분별하여 선택하는 시민의 책임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고 결국 그 성이 중건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덕목을 갖춘 정치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과 지혜를 갖춘 사람,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그리고 사심이 없는 깨끗한 삶으로 인해 도덕적 권위를 지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구에서 어떤 인물이 이런 자질을 가장 많이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검토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국가로 되는 일이 우리의 이번 투표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책임있게 시민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3절 )

유 경 동

(감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3)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국가의 통치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정당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을 용인하되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파생하는 대립을 조정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한국 상황 내 각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하여 논하지 않더라도 소위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행태는 이제 국민들에게 식상하여 버린 지 오래라는 느낌이 든다. 정권을 쟁취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구호만 있고 뚜렷한 정치적 목표나 의식이 없는 정당이 많다보니 후보가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은 우리에게 갑갑증만 더하여 줄 뿐이다. 이제 곧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합집산을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우리는 정치의 기저에 정신적인 기제로 자리 잡혀야 할 도덕이나 윤리가 결여되어있는 현실 속에서 자치적이며 윤리적인 정치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어떤 형태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지배 체제는 과거 국가의 권력 기구인 경찰과 군대를 사회 질서의 전면에 배치시켜 지배집단의 권력과 체제 이념을 절대시 하였다. 그리고 안보 국가를 이념으로 앞장세운 권력의 힘은 도덕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 사회를 지배하여 지배 집단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였고 권력의 부패는 결국 지배계급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과거 ‘근대화’와 ‘개발’이라는 명목 속에 추진된 한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 프로젝트는 진정한 발전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를 낳았으며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태로워지고 ‘도덕의 부재’라는 아노미 현상을 야기 시켰다. 한국의 사회에 근대 국가가 추구한 이념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도덕은 봉건과 제국주의,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도덕이 국민의 자유와 민주라는 적

극적 이념에 기초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최고의 도덕으로 하는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이념에 근거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도덕의 부재는 근본적으로 국가도덕의 부재, 즉 지배집단의 도덕성 결여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관료-정치가-대자본가들은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 왔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이전 정권과 연루된 수많은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접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들 지배집단의 행태를 모방하게 되었다. 사회 전체가 무규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의 도덕적-윤리적 기반이 약화되고 지배 집단의 정치 능력이 취약할수록 국가는 억압적인 기구를 확대하면서 한편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무규범적인 국가사회에서 국가의 우월성과 지배계급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 사회는 정치와 돈의 논리가 법과 도덕의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의 논리는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사회의 도덕적인 공간을 더욱 더 압박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위와 같은 무도덕의 영역은 한국 사회에서 각각 무규범적인 국가주의 뿐 만이 아니라 그 국가에 속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이기적인 가족주의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도출하여 내고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토론과 참여를 통하여 민의를 형성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하여 나아가야 할 국가 권력은 냉전 시대 하에서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배 집단의 사상이나 이념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 일사불란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특징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눈치를 보며 복종하면서 탈법의 경향을 띠는 소비나 향락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무 규범적이며 국가의 일방적인 무 도덕성은 국민들을 탈법적으로 몰아세우는데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소위 ‘일상적인 저항’을 하도록 내몰게 된다. 즉 국가의 거대한 권력체제에 무력한 국민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스스로 법을 어겨서 국가에 저항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지배 집단에게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혁명이 아닌 한 가능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 자체의 생존 논리인 ‘일상적 저항’은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가족이기주의를 초래하고 전통사회의 효(孝) 윤리에 기초한 가족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매개로 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는 쪽 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친족의 번영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국가 사회에서 필요한 협동과 공동체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도덕의 위기는 개개인의 인격완성과 개인주의적이며 도덕주의적인 동양식 예절교육을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없으며 국가의 도덕을 바로 잡는 일을 통하여 올바른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의 도덕성이 회복되면 본래적 인간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는 논지가 인간 본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적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 있어서 도덕적 국가관의 회복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으로 돌아가 한국 사회를 선도할 국가의 이념은 진정한 민주적 진보와 사회의 발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당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정략은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학문은 있으나 지혜는 없으며, 기술은 있으나 정신적인 에너지는 없고, 공업은 있으나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학은 없다. 윤리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정치와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 인간을 지배하기보다는 인간성에 기여하는 기술 공학, 자연을 파괴하는 산업으로부터 자연과 일치하는 인간의 관심사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산업, 그리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로부터 자유와 정의를 통하여 화해하는 민주주의의 구현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 더 이상의 도덕적 부재는 안 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무규범과 부도덕을 극복할 숭고한 정치적 ‘분별력’과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정치와 권력이 서로 결탁하여 거만한 지배욕과 압제라는 간악한 탐욕이 인간을 사로잡을 때 그 정치적 경험 속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정화할 수 있는 ‘분별력’이며 이것을 전제로 발전적인 국가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순응하는 이기적 요구를 넘어 ‘현실의 변혁’으로 나아가는 통찰력과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성숙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기대하여 본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질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보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그 정치를 바로 잡는 시대적 정신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 부응하여야 할 현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한국 근대사의 왜곡된 역사관을 재해석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영성의 역사적 정황을 끊임없이 재해석하여 궁극적 의미를 삶과 연관하여 전하여 줄 교회 자체도 세속화와 물신화 풍조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의 정치적 임무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와 관련하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다. 즉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묻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교회가 울리는 메시지의 방향이 꺾전을 울리는 도덕성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있다. 동시에 기독교인의 책임을 개인적 경건주의의 영성 차원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성이 아닌 이웃과의 책임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거룩성’에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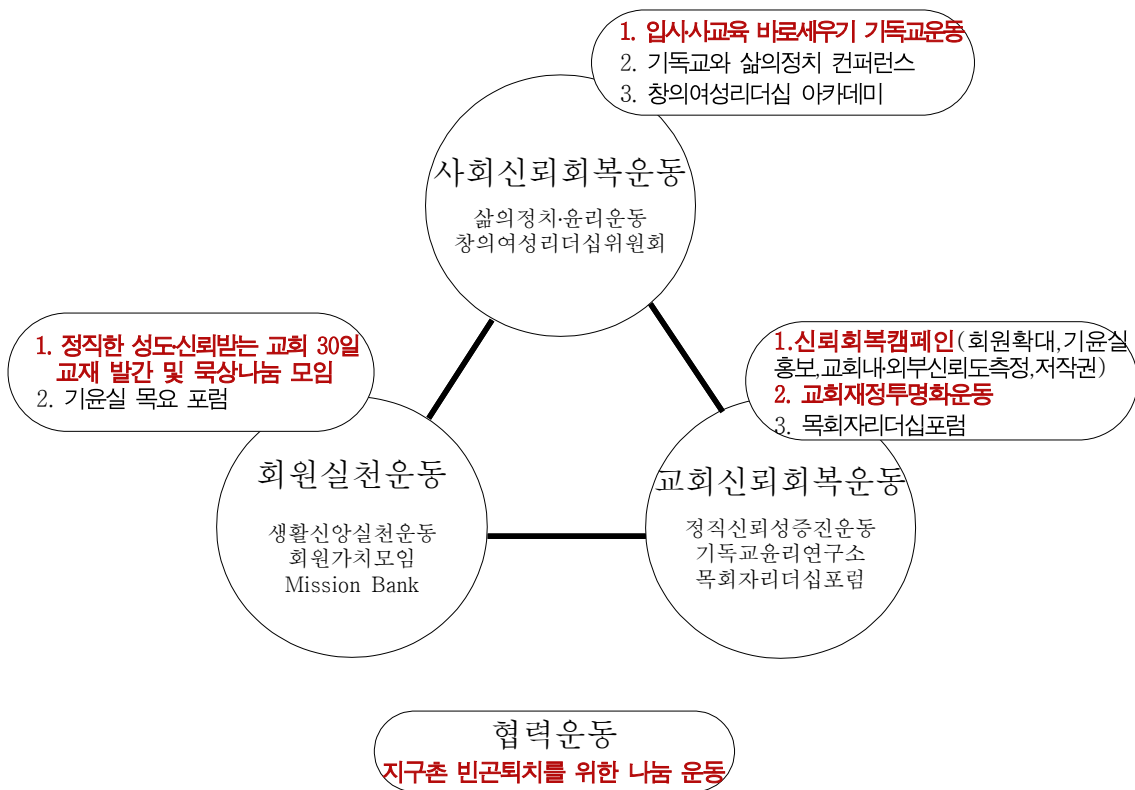
정치와 신앙은 각각 이 땅의 유토피아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뭇 흡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관념론으로 포장된 이데올로기에 헌신하는 사회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보편적인 사랑을 획득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변증법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총선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전제로 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서의 모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교회는 먼저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사회 정화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섬김으로 사회 속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다운 정치참여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기윤실은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7년 김인수, 손봉호, 이만열, 이세중, 이장규, 원호택, 장기려 선생 등을 통해 시작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교회신뢰회복운동>, <사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 2008년 기윤실 9대 핵심 사업



### 기윤실의 조직

기윤실은 전국 9개 네트워크에 1,200여명의 후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 사 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 ◎ 공 동 대 표 : 김동호(높은뜻승의교회 담임목사),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 ◎ 사 무 총 장 : 양세진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번지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cemk@hanmail.net www.cemk.org